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06–907 1982년 8월 20일(금) & 21일(토) |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August 20 & 2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UG 23 1982

교사 자질향상 필요

회화중심 모국어교육 지향

제2차 전국한글교사대회 12개지역 47명 참가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일선교사의 재교육 강화를 통한 자질향상이 시급하며, 교사들끼리의 정보교환, 연구의 기회가 보다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마니토바주 위니펙에서 개최된 제2차 전캐나다 한글학교 대표자회의 에는 12개지역 총 47명의 참석 했다.

캐나다 한인연합회 주최, 위니펙 한글학교 김원경교장 주도로 개최된 이번 한글학교 대표자회의는 3일간 위니펙시내 센·존스·라벤스코트고등학교에서 전국의 참석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며,

(1)한인사회와 인종차별
(2)한글학교 운영
(3)한글교육평가및 기준
(4)민족언어 유지
(5)지도방침과 교과내용.
(6)문화와 언어교육
(7)교과서 편찬의 현황에 관해 토의했다.

특히 13일 지도방침과 교과내용에 관해 기조연설한 뱅쿠버의 이승수박사는 앞으로 모국어교육은,

(1)효과적인 2중언어 사용
(2)한글교사 재교육 긴급강화
(3)화화중심의 언어교육 방향으로 지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한글학교를 가진 토론토를 비롯, 워터루, 몬트리얼, 나이아가라, 런던, 오타와, 에드몬톤, 캘거리, 위니펙, 해밀턴, 뱅쿠버등 전국의 한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진지한 관심을 모은 것은 토론 토 씨알학교 유회자교장의 발표였다.

유교장은 씨알학교의 현황 소개를 곁들여 학교운영은 이사회의 운영보다 교과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한글학교의 교과내용은,

(1)캐나다 문화와 한국문화를 고루 이해하는 총문화교육(Total Culture Program)이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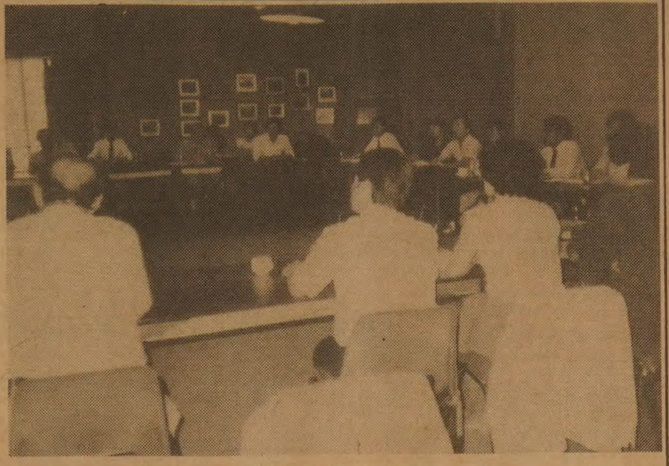
(2)한국어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교육, 즉 아동의 심리안정, 친구사귀기, 한국인임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3)아동의 캐나다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주정부및 오타와의 대사관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한글교육자회의 첫날 개막식에서는 플레밍 복합문화성장관과 액쉬디 이민성장관 이규현대사,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의 축사(대독)가 있었다.

인종차별 방지 대책에 관해 오기송박사는 이민자가 사법권한을 쥘 기회를 갖고 각 민족이 서로의 이민풍습을 서로 이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것"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제2차 전국한글교사대회 회의광경.

금리하락 계속 15% 선까지

미국은 14%, 증권가 폭등 전망불투명

지난주 미국의 주요은행 우대금리가 14%대로 내려온데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는 적어도 1%가 떨어져 14%선을 유지, 캐나다 주요은행들이 최우선고객에게 주는 우대금리는 적어도 1%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자율은 점점 떨어져 지금은 투자를 할 시기다. 금리는 더 떨어진다"등의 낙관론과 함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18일 폭발, 하루에 +38을 기록, 수년내 최고 수준을 보인데 이어, 토론토 증권시장은 17·18일 이틀간 +68을 기록, 12년만에 기록을 돌파했다.

한편 증권가의 많은 분석가들은 "아직도 금융시장의 수요·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인상 요인이 있고, 경기가 회복된 실질적 증거는 없으므로 이번 증권시장의 폭발은 곧 반전될 것"이라고 반대로 전망했다.

세계 유수의 증권회사 메리·린치의 교포중계인 강상욱씨는 19일 "경기침체가 바닥을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경기변동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투자할 시기는 왔다"고 말했다.

이번 증권시장의 폭발은 미국의 유명한 증권회사 「솔리몬 브라더스」의 고위 경제관 헨리·카프맨씨의 금리예상에서 시작됐다. 증권시장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인사인 카프맨씨는 16일 "년말까지의 금리는 20%선을 넘을 것이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미국은 올가을 국회의원 선거와 2년후의 대통령선거등 정치적 요소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다"고 반대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17일 +38까지 폭발했던 뉴욕증권시장의 다우·존스는 18일 오히려 −1.81을 기록, 829.43에 머물렀다.

◉다우·존스 : 미국 주요 30개 기업들의 증권매매가격의 합계를 말한다. 미국의 경기를 말해주는 전통적인 지표로 1929년 대공황때는 50[illegible] 내려왔었다. 지난 72년과 74년에 1,100까지 올랐다가, 최근의 불황으로 한때 770까지 떨어졌었다. 17일 하룻새에 38이 오른것(830도달)은 최근 수년간의 기록이다. 다우존스는 엑손(Exxon), 지엠(GM), 제네럴·일렉트릭(G.E)등의 주요산업회사(Industry) 지표와 교통업(Transportation), 전기등의 보조산업(Utility)으로 구분한다.

<뉴스해설>

경기회복 예상에 혼란

"경기는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하는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문제이며, 좁게는 우리 교포사회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무도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경제뉴스를 다루는 토론토의 주요신문들도 갈팡질팡, 17·18일의 증권시장 폭발과 금리하락 추세를 놓고 반대의 논평을 했다.

「선」지는 18일자에서 「경기의 바닥을 벗어났다? (Goodbye Recession?)」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리는 계속하락 될 것이고, 부동산경기도 늘어나고 증권시장은 붐을 형성, 경기회복은 계속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경제기사에서 가장 권위를 나타내는 「글로브·앤드·메일」지는 "조심하라.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다"는 비관론자들의 분석을 실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부수(약50만)를 자랑하는 토론토스타도 증권시장의 붐은 있었으나, "아직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증권중계업자 강상욱씨는 "캐나다의 경제는 미국경제와 직결됐다. 지금이 미국경제가 풀려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이건 인위적이건 미국금리의 인하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경제를 알기 위해 미국 경제의 현상을 보면 현재의 불경기는 우선 2년전 리건행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노출됐다.

카터대통령 재임시 아프카니스탄 사태등으로 금·은값이 폭등한데 이어 인프레이션이 일어나자 리건은 선거공약으로 인프레 억제를 들고 나왔다.

리건은 취임후 「리거노믹」(리건의 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이를 잡기위한 고금리정책을 사용, 불황을 몰고 왔다. 인플레이는 7%선에서 억제됐으나, 고금리정책으로 일어난 여러 부작용은 리건이 노리는 차기선거를 위태롭게 했다. 그러나 현 미국정부가 근2천억달러에 재정적자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계속 빌려가는 한 금리인상요인은 계속 남아 있다. 차기대통령 선거와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공화당정부는 최근 세금을 올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재정조달을 줄여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분석기들은 이같은 정치를 위한 인위적 경기조작은 오래가지 못하며, 또 언제 정치적 정책이 변화 금리가 반전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경제불황은 캐나다에 직접영향을 미쳐 트루도정부를 위태롭게까지 하고 있다.

낙관론 : 증권시장폭발, 금리인하추세
신중론 :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정략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경기가 최저치(바닥)에 다달은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언제 회복 되는것은 누구도 모른다. 요즘같은 시기는 증권이나, 부동산투자등을 잘하면 뜻밖의 수확을 올릴 수도 있다고들 말한다.

〈유승민 부장〉

평통자문기구 조직

위원수 44명으로 확대

한국정부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기구를 조직화, 캐나다의 토론토지구·몬트리얼지구·뱅쿠버지구의 3개지역으로 나누고, 몬트리얼 거주 자문위원 백기순씨(54세·회사원)를 캐나다 전지역 상임위원겸 지역협의회장에 임명하고, 3명의 부회장과 고문 4명, 간사 1명, 기존자문위원 12명에 32명의 자문위원을 추가 임명하는등 기구를 대폭늘렸다.

한국정부는 캐나다지역 「평화통일자문회」조직화를 기회로 이병영 통일원차관등 관계자와 함께 남덕우 총리를 파견, 18일 토론토시내 홀리데이·인에서 「평통위원」임명장 전달식 및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연수식에서 남덕우 전총리는 「한국통일정책방안」에 관해 연설, "통일의 염원은 해외에 사는 교포들이 더욱 간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식에는 약60명의 평통관계자중 반수인 30여명만 참석했다.

캐나다지구 평통구성은 아래와 같다.

◆상임위원겸 지역협회장 : 백기순(몬트리얼)
◆수석부회장 : 윤여화(토론토)
◆부회장 : 황필주(몬트리얼·치과의사)
◆부회장 : 이유성(뱅쿠버·계리사)
◆간사 : 최충식(토론토·CN근무)
◆고문 : 전택균(전 토론토한인회장)
◆고문 : 고종욱(신부·토론토한인성당)
◆고문 : 조영호(노년회장)
◆고문 : 방용성(몬트리얼천주교사목위원장)
◆기존자문위원(12명)
최충식(토론토)·김형휘(뱅쿠버)·박부용(토론토)·방용성(몬트리얼)·백기순(몬트리얼)·오유식(런던)·이유성(뱅쿠버)·장근원(해밀턴)·정일송(런던)·조성학(해밀톤)·최경호(에드몬턴)·김경한(뱅쿠버)
◆신임자문위원(추가분 32명)
(1)토론토지역－18명
이상천·강신봉·전택균·윤여화·조한철·조영호·박인순·장순채·박주삼·이영현·

(2면에 계속)

◆12일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연수대회에서 연설하는 남덕우 전총리.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 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 · 총각무 · 파김치 · 부추김치 · 오이소백이 ● 큰 병 $6.99 ~~$9.50~~
● 작은병 $4.50 ~~$6.90~~

	SPEC	REG.
♧ 북어포	1.25	~~1.55~~
♧ 마른미역	1.99	~~2.50~~
♧ 물미역	.99	~~1.29~~
♧ 소 면	.89	~~.99~~
♧ 냉 면	.99	~~1.29~~
♧ 도라지	2.49	~~2.95~~
♧ 물오징어	.85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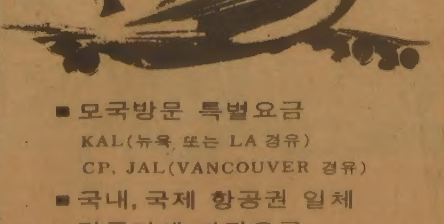
※ 갈비 · 불고기 · 배추 · 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 신풍 / 대한 쌀 / 가주미 장미표 / 국보 / 경기미 }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CNE 박람회 개막

9월5일까지, 달리·파톤등도 출연
작년보다 가격 올라, 교통혼잡

10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의 국립박람회(CNE: Canadian National Ex hibition)가 18일 개장됐다.

CNE는 각 기업체가 제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비지니스계의 큰행사이기도 하지만, 스포츠, 연예, 문화의 종합제전이다.

국제적 명성을 가진 CNE가 열리는 동안에는 캐나다 각지뿐 아니라 미국등지서 몰리는 관광객 때문에 레이크쇼어 지역은 곤란을 겪는다. 사람들이 하도 몰려 팝, 아이스크림 판매가 감소한다.

9월6일까지 20일간 계속될 금년 박람회의 입장권은 일반 $3.50으로 작년보다 50센트(16%)가 올랐고, 13세 이하는 $1씩, 어린이와 노년은 무료.

CNE입장료로 온태리오·플레이스까지 들어갈 수 있다.

각종 오락게임과 탈것(Ride)의 값도 작년보다 6-8%가 오른 75센트씩, $15짜리 패스를 사면 입장권과 각종게임에 쓸 수가 있다.

CNE로 가는 TTC편은 배더스트지하철역에서 전차를 타거나 더퍼린사우스버스 종점까지 가면 된다.

19일하오2시 시작된 개막식에는 에드워드·슈라이어 캐나다총독이 참석했고, 미스·CNE 선발대회, 악대, 어릿광대와 마이티·마우스, 프레드·플린스톤등 만화의 주인공들이 CNE구내를 돌아다녔다.

이 기간동안 토론토의 야구팀 블루제이스는 익시비션·스태디움에서 뉴욕·양키즈및 볼티모어·오리올즈와 CNE마지막 6일간 6게임 이상의 대전을 갖는다.

풋볼 팬들을 위해 토론토 아고넛츠는 오타와 하프·라이더즈와 대전을 벌인다.

10만달러짜리 비데오·센추럴·돔(Dome)에서는 최신 오디오·비데오 게임들을 전시하며, 에어·캐나다는 캐나다등산팀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캐나다등산팀의 입체사진을 전시한다.

로울링즈·스포츠·캐라반이 혁신적이라고 주장하는 야구글로브와 유니폼을 선보이며, 특히 TTC는 Bender를 내놓았다.

토론토 한국일보사는 22일(금)하오5시부터 8시까지 밴드·쉡 야외공연장(터프린스트릿 쪽)에서 각 에트닉신문들과 더불어 한국어신문의 면모를 전시하며, 박종수태권도장은 21일(토) CNE국제태권도챔피언쉽을 개최한다.

미국·캐나다 전역의 유단자들이 특유한 격파및 호신술을 보일 대회장소는 사우스·인더스트리(South Industry)빌딩이다. 기타 한국상품 전시판매 「부스」도 있다.

CNE 그랜드·스탠드 '82연예쇼의 출연진에는 지나치게 풍만한 육체의 금발 컨추리 가수 달리·파톤(Dolly Parton), 호주출신의 미녀 올리비아·뉴튼·존(Olivia Newton-John), 60년대의 정상그룹 비치·보이즈(Beach Boys)등이 포함돼 팝송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연예쇼 일정

8월20일(금)Dolly Parton
8월21일(토)April Wine
8월23일(월)"어린이의 날"로 Sharon, Lois & Bram
8월24일(화)Black Sabbath, Johnny von Zant
8월25일(수)Alabama와 Roy Orbison
8월26일(목)Olivia Newton, tom Scott
8월28일(토)Genesis
8월29일(일)Heart와 John Cougar
8월31일(화)Rick Springfield와 The Greg Kihn Band
9월2일(목)Stevie Wonder
9월3일(금)Beach Boys
9월4일(토)Night of Champions—Boxing
9월5일(일)The Clash—With Black Uhurse

공연표는 각 레코드 판매점과 각지의 Bass등지에서, $13.00, $9.00씩 부터 $14.00까지이다.

「평등」보다 「자유」 우선

한국인 전쟁나면 75% 참전

(서울14일=연합)보통의 한국사람들은 인간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중시하며, 적국과 전쟁이 나면 참전할 각오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갤럽조사 회사가 벨지움, 일본및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들과 공동으로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세계15개국 거주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무작위 추출(랜돔·샘플링)에 의한 조사 응답자는 총2만2천명이었고, 이중 한국인은 1,182명이었다.

19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중 절반은 자유를 평등보다 더 중시했다. 평등을 더 원한 사람은 31%였다.

미국, 영국, 서독, 이태리 사람들은 자유및 평등에 대한 지지도가 각각 72:20, 69:23, 37:30, 43:45였다.

자기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면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한국의 경우 75%, 미국 71%, 영국 62%, 유럽 10개국은 평균43%였다. 이 문제에 대해 2차대전 도발국인 서독은 35%, 이태리 28%, 일본 22%여서 3개국이 가장 낮았다.

이철수재판에 유리한 「새증인」

루시크수사관 "문제의 권총에 이씨지문 없었다"

(상항지사)이철수씨의 재판속개 11일째인 16일, 73년당시 이철수의 차이나타운사건의 과학수사를 맡았던 마이크·루시크 범죄과학연구소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두, 이철수의 총기사용여부, 지문채취등 당시 자신의 조사결과가 잘못됐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앞으로 이철수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얼코트 제27호법정(재판장-로버트·도시)에서 속개된 재판에는 12명 배심원이 출석했는데, 증인 루시크수사관은 73년 첫재판때 "피살자의 몸에서 나온 38구경 실탄이 체포당시 이철수가 소지한 45구경 권총으로 발사할 수 있다라고 제출한 보고서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38구경 권총실탄은 절대로 45구경 권총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첫번재판에서 이철수씨에게 불리했던 증언을 번복했다.

이철수변호측은 18일부터 시작되는 변호인측 증인에서 차이나타운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한사람의 유리한 증인을 확보함으로써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확증시킬 것이라고 측근에게 밝히고 있다.

한국서 영면 원해

주한 프랑스대사 샹바르씨

(서울 19일=연합)1958년부터 69년까지 11년간 대사겸 주한외교사절단장을 지낸 로제·샹바르(Roger Chambard)씨가 유언에 의해 한국에 묻힌다.

샹바르씨는 지난5월7일 프랑스에서 78세의 나이로 사망하기전 한국인 친구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하고, 유골은 한국의 절에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따라 그의 유골은 22일 서울에 도착, 경남 합천해인사 묘역에 묻힌다.

샹바르씨는 죽기전 프랑스외무성의 공보국에 근무했다.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사진 : 임정재
◆카메라 : 하셀브라드→500 c/m 포커스 8~1/125초

"아다바스카 글래씨어" 수십만년의 인류역사를 반영 하는 자스퍼의 아이스필드.

천지창조 당시의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 우리 눈을 유혹 한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2

김낙중 (해밀턴한인연합교회 담임)

문제는 광활한 〈땅〉위에 선 교회가 장막이 아니라 대성전을 건설한 데에서 비롯된다. 유목민의 믿음이며 〈사막 종교〉인 야훼 신앙이 가나안 땅의 물질주의에 흡수되어 정착민의 예식이며 〈농업종교〉(fertility cult)인 바알 숭배로 변질되었듯이 사람의 아들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한 예수의 복음과 천막 만드는 일이 생업이었던 떠돌이 선교사 바울의 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면서 철학이 되었듯이 한국 교회는 보따리를 싸는 습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가둔 호화주택에 안주하며 현세주의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 세상에서 장막을 짓고 나그네처럼 살던 믿음의 조상이 바라보던 성,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도시가 땅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신앙의 호흡은 종결되고 만다. 야훼의 언약궤가 솔로몬의 대성전에 안치되는 순간에 종교는 생명을 상실한다. 거대한 피라미드에 〈죽은 하나님〉의 관을 안치하고, 초상집에서 마신 〈잔치 술〉로 어지러워진 기분을 즐기는,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한국 교회의 체질이 되었다. 모이기만 하면서 흩어질 줄 모르는 문화의 유형이 떠돌이 예언자의 종교를 추방하였다. 구정물에서라도 먹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고향에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은 철새처럼 한국교회는 본향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고, 요릿집을 경영하는 대처승처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 색주가의 열락에 빠져 〈Sea Fever〉를 상실한 뱃놈아, 퇴약볕이 싫어 오아시스에 자빠진 카라반아, 언제 떠날 테냐?

머무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도시와 성을 건설한다. 〈성〉안에서 살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의 철학이 성립되고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사명 의식이 포기된다. 강남구에 자리잡은 웅장한 대성전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으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의 소굴 소돔과 고모라의 신전에서는 "아무래도 큰 게 낫다"는 소비자의 기호와, 은혜와 축복을 물량화, 계수화(datable, measurable)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를 조장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거늘, 금전만능주의(mamonism)를 지지하는 역할을 놀랍게도 교회가 떠맡게 된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과오를,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 갈릴리 교회가 로마 교회로 되면서 교회사는 제국의 역사에 포함되고 말았던 것이다.

퇴약볕이 싫고 쫓겨 다니는 생활에 이력이 난 백성은 〈내세〉에의 믿음을 발전시켰다. "My home is over Jordan,"이라는 피안주의는 피압박 민중이 택한 당연한 철학이었다. 그런데, 자연에 노출되지 않고 부족할 것이 없는 〈성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현실보다 더 좋은 환경을 상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교회로 간주되는 〈S중앙교회〉의 성장의 비밀은 현세성의 강조에 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백성에게 현세에서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가난은 죄악이다", '당신도 잘 살도록 축복받았다", "사람에게는 성공에의 본능이 있다"는 말씀이 가난과 실패로 좌절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복음이 상업주의로 포장되는 과정에 있다. 축복이 계량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유물론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삼박자 구원〉의 개념이 〈실천적 무신론〉으로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양지 뿐만 아니라 음달도 지배하시며, 그의 권능과 영광은 세계의 불행과 비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김낙중 목사

"〈나〉는 양지 쪽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과 "뜻대로 하옵소서"하는 기도가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이다.

〈신령함〉으로 위장한 교회의 유물론과는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실천적 무신론이 고개를 들었다.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정당한 목표와 필요한 운동이 길을 잃게 되면, 〈나〉의 선악 개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전술을 채택하게 된다. 사회의 부조리에 직면한 양심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를 〈보안관과 무법자가 벌이는 서부 극〉으로 파악하고 내가 〈good guy〉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bounty killer〉일 뿐이지 정의 자체가 아니다. 역사를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계급투쟁으로 해석하고 〈빵의 재분배〉를 투쟁의 목표로 간주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이데오르기이지 신앙이 아니다.

그러나 서구 신학이 사회의 상층 구조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우리의 사고는 지배자의 가치 의식으로 세뇌되었음을 지적해두자. 여기서 우리 사고의 흐름은 또 한번의 전환을 겪어야 한다. 잉태되었으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한국 신학인 〈민중 신학〉, 〈땅의 사람들〉이 본 〈하나님의 역사〉의 전제는 정당하다. 물론 그것은 변증법적 종합의 단계로 고양될 antithesis일 뿐이다.

해밀톤광복절 시장이 축사

(해밀톤)해밀톤한인회(회장 이영구)는 지난15일 해밀톤시청 광장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인의 광복을 축하하여 해밀턴시청 옥상에는 1주일간 계속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광복절기념식은 "애국가", "오 캐나다"제창후 목사 축도, 이명구회장의 기념사, 빌·포웰(Bill Powell) 해밀턴 시장의 축사, 만세삼창으로 끝났고, 이어 시청광장 잔디밭에서 스넥파티로 교민친교 시간을 가졌다.

(1면에서 계속)

한국문화 주입방법에 문제

14일 있은 "한인한글학교 운영"논의에서는 캐나다의 총35개 한글학교가(이중 25개가 온타리오주, 14개가 토론토)각주별로 캐나다정부의 보조금을 얻어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정부의 보조에 너무 기대치 말고, 한국의 예산은 모국의 교육에 투입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글교육평가및 기준」토의에서는 각 학교별로 평가기준이 다르며, 회화직 한글교육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교과서의 운영실정상 실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민족언어유지 토의에서는 위니펙의 각 에트닉별 모국어교육 현황을 민족별 대표를 초빙, 보고를 들었다.

특히 교과서를 본국에서 편찬해 오거나 중·고교 학생이 없는 한국인에 비해 이민역사가 오랜 민족은 학년수가 많은점이 드러났다.

「지도방침과 교과내용」토의에서는 초·중·고급반으로 분반, 일선 교사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제작된 교과서는 지나치게 국가홍보의 색이 짙고, 초급바 아동교육을 위한 교재및 교과서의 전문제작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중급반의 경우 한국의 역사·문화를 가르친다는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편찬의 현황에서는 토론토 씨알학교가 추진중인 교과서 제작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일선교사들이 연구·토론의 광장이 제공된데 대해 주최측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는 일선교사의 정보교환및 재교육 기회가 보다 많은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차기 한글교육자대회는 3년뒤 서부 캐나다의 한 도시에서 개최된다.

(1면에서 계속)

평통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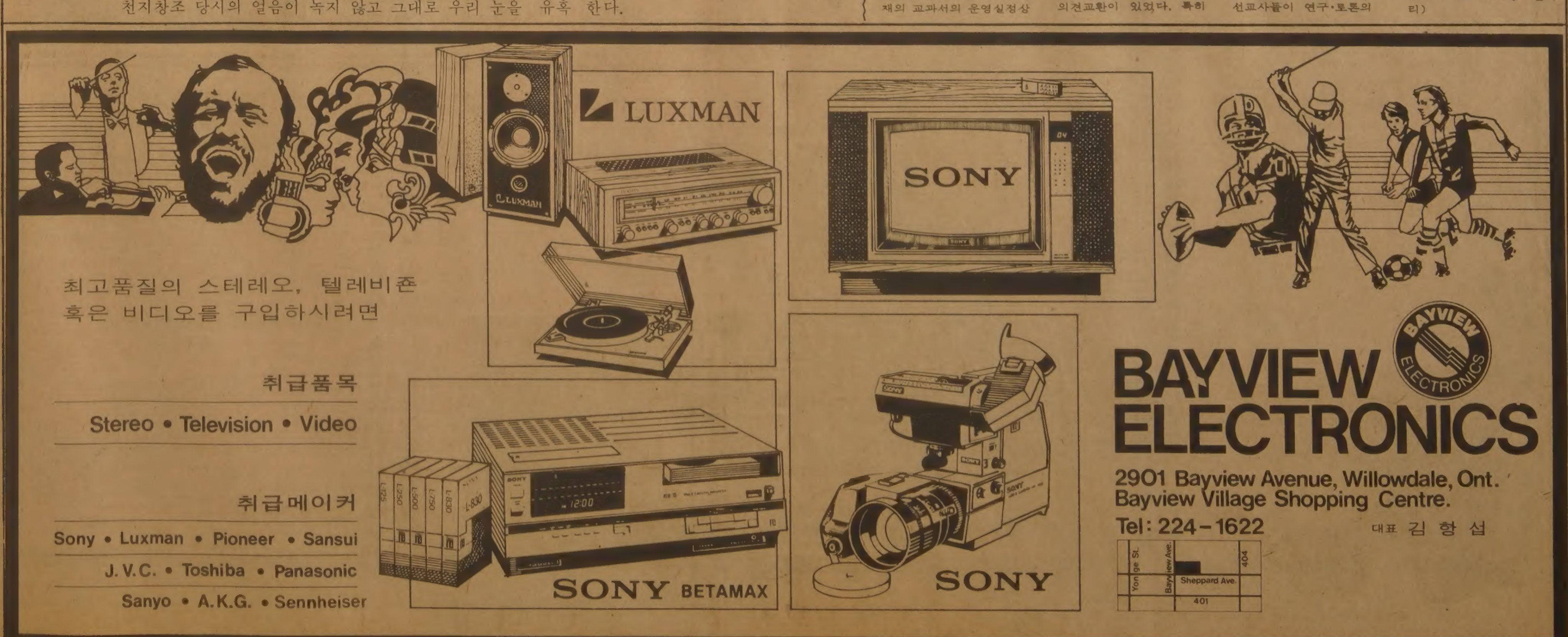
·함의헌·차선겸·강찬영·김태진·고종욱·이영상·이형인·박종수(위니펙)

(2)몬트리얼지역-6명

오기송·정회수·김해연·황필주(이상 몬트리얼)·강성원(오타와)·김득추(뉴펀들랜드)

(3)뱅쿠버지역-8명

심선식·김홍권·임승철·최 선(이상 뱅쿠버)·이명구·최춘달(이상 에드몬톤)·이원식·차광준(이상 캘가리)



〈단 편〉

불루어스트리트의 하루〈7〉

이 태 준(문협회원)

한국재가 화재를 다 적고 약을 지으러 약방으로 들어가려할 때 출입문이 열리며,

"실례합니다."

하는 또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국재는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어서 오세요."

하며 막 들어서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마는 말씀 좀 여쭈어보려고 왔읍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 혹시 김노인이라고 얼마전에 이 근처 노인아파트로 오신 분이 여기 계신가 하고요."

"글쎄, 나도 그 노인을 찾고 있었읍니다마는, 댁은 그분하고 어떻게 되시죠?"

"딸입니다. 벌써 이틀째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돼서 오늘은 직장에 갔다가 들렸는데, 아파트문은 꼭 잠겨있고, 여기 와서 물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여인은 더욱 근심스러운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거참 이상하네요. 나는 따님댁으로 가셨나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모르겠읍니다."

순간적으로 여인의 얼굴에 불길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정말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읍니다. 빨리 경찰에 연락부터 해두는 것이…" "실례했읍니다."

여인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울먹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

밤은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밤은 향락을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북미 나이트클럽의 현장이다. 어둠이 내리기시작하는 아홉시 무렵이면 대개의 한인업체들은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북미 나이트클럽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휘황찬란한 네온싸인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반짝거리고, 북미 나이트클럽의 출입문은 밤을 즐기려는 고객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기 시작한다.

훤칠한 키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미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직 초저녁이라서 듬성듬성 앉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저마다 한 소리씩 뱉아냈다.

"저 친구는 넉살도 좋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또 하나를 차고 나타났구먼."

"오랫만에 기분 좀 낼려고 왔더니, 초장부터 잡쳤어."

"저걸 누가 철창에 못 집어넣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난의 폭우 속에서도 동반한 여인과 함께 여유롭게 담소를 즐기며 맥주병을 비우고 있는 사나이는 난잡한 여자관계로 유명한 구청수였다. 그는 그럴싸한 용모와 언변, 여자들을 살살 녹여주는 춤솜씨를 이용해서 부녀자를 희롱하고, 그것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서 살아가는 전달이요, 여체의 기생충이었다.

그로 인해 파경에 이른 여자가 부지기수였고, 심지어는 결혼을 조건으로 내세워 한국에 있는 여성들에게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었다.

"자유가 좋기는 좋다."

"누군지는 몰라도 저 여자도 신세는 조져 잡수셨어."

비난의 소리는 군데군데에서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악단의 조용한 춤곡이 연주되고 있었으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음인지, 아무도 춤을 추는 사람이 없었다. 너털웃음까지 섞어가며 담소를 즐기고 있던 구청수가 여자를 끌고 일어나 맨먼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관록이 붙은 그인만큼 좋은 무대에서도 여자를 리드하는 그의 춤솜씨는 비난하던 사람들마저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기막힌 것이었다.

구청수가 놀이개를 가지고 놀듯이 한참 신이 나게 상대방 여자를 굴리고 있을 때, 출입구를 다급하게 들어서는 부인과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한참동안 홀안을 두리번거리다 춤의 황홀경에 빠져있는 구청수에게 뛰다시피 다가가 구청수가 안고 있던 여자를 나꿔챘다.

"이년아! 이놈이 누군줄 알아?"

"이놈의 자식아! 너 누구 신세를 망쳐놓을려고 그래?"

부인은 어찌할 틈도 주지 않고 구청수의 품에서 단꿈을 꾸고 있던 여자를 바으로 끌고 나가버리고, 같이 온 남자는 구청수의 따귀를 올려 붙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말문이 막혀있던 손님들의 입에서

"구청수를 죽여라!"

하는 고함소리가 들리고, 음악소리가 그쳤다.

홀내의 분위기가 험악스러워지고, 흥분한 손님들이 구청수를 가운데 두고 좁혀들기 시작했다. 구청수는 어쩔 줄을 모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주인 엄동선이 나와서 사태를 수습하지 않았다면 구청수는 흥분한 손님들의 구두발 밑에 짓밟힌 떡이 되었을 것이다.

"손님들! 즐기려고 오셔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나머지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제 자리로 돌아가 앉으십시오."

동치가 황소같은 그의 말에는 위엄이 있었다. 손님들은 머뭇거리다 하나씩 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엄동선은 구청수와 남자를 앞세우고 홀 뒤로 사라졌다.

소란을 정리하기 위한 빠른 템포의 음악이 다시 연주되었다. 두번째의 음악이 연주될 때는 흥분을 가라앉힌 손님들이 무대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이트클럽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갔다. 음악과 춤과 술이 어우러져 자아내는 흥의 열기 속에서 웃고 떠들고 춤을 추는 그들의 뒤안에는 가고 싶은 고향과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보려는 이민자들의 슬픔이 있었다.

구청수를 끌고 맥주통을 쌓아놓은 창고로 온 주인 엄동선은 우선 같이 온 남자에게 사연을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엄동선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읍니다. 저는 최수한입니다."

"이거 누추한 곳에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저 구청수가 데리고 왔던 처녀의 애비가 됩니다."

"그러십니까?"

엄동선이 딴청을 부리고 서있는 구청수를 노려보며 대강 짐작이 가는 듯이 대답했다.

〈계 속〉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의 사나이 〈52〉

金聖鍾 作

殺意斷層 ⑲

화난 남편 "살기 싫으면 죽어버려"

문자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가서 남편과 내각으로 보는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다.

『지금 제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 거야?!』

낮으나 싸늘한 음성으로 남편이 물었다. 그는 결코 큰 소리 내는 법이 없다.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작고 차가와진다.

『죄송해요.』

문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도대체 사람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수가있어?!』

『……』

『거기가 어디라고 주정을 부리는 거야? 그여자가 누군 줄이나 알아?』

『……』

『알고 그랬느냐 말이야?』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런짓 못했겠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주었다는거야?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여자 같으니!』

『죄송해요.』

『그 따위 말 듣고 싶지도 않아.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그여자한테 가서 사과해. 회장 세째 딸이란 말이야!』

그러나 문자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채 손가락에 끼여있는 다이어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을 비틀어 돌렸다.

『당신 오늘 파티에 참석하는 자세부터가 글러먹었어. 다른 여자들 차림새하고 비교해봐. 그게어디 파티에 참석하는 몰골이야? 거긴 회장님을 축하해주는 자리야. 그렇다면 아무리 귀찮더라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할거 아니야?!』

그녀는 반지를 돌렸다. 그것을 새끼 손가락에 걸고 돌렸다. 남편은 부동자세로 앉아있었다. 끝날때 까지는 절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않을 것이다. 마음대로 지껄여라. 얼마든지 들어줄테니. 한숨을 내쉬자

朴 男 그림

[illegibl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배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단풍을 찍읍시다"

제7회 사진촬영대회 안내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을 위한 사진대회가 금년에는 단풍이 보기 좋은 보이드·콘저베이션·팍에서 열립니다.

피크닉겸 가족동반, 공원에 나오시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모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밝은 렌즈에 담아봅시다.

때 : 1982년10월 2 일(토) 상오11시
곳 : 보이드·콘저베이션·팍
(Boyd Conservation Park : on Islington, Hwy 7북쪽)
부 문 : 칼라·흑백·스라이드
크 기 : 8 × 10 이상
출품마감 : 10월30일한

◆79년 제5회 최고상 황보운작품

참가자격 : 국적불문(단 : 사진협회 임원·한국일보 직원및 프로 사진작가 제외)
참 가 비 : $10(칼라필름 1통 제공)
시 상 : 1등 부상 나이콘 카메라 1대
기타 6등까지 시상함.

◆선착순 1백명에 한함

문의및 접수처: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전화 533-2361)
◉전경수(36 Neapolitan Dr, 438-4435)
◉킹스카메라(619 Bloor St, W, 534-1085)
◉새한칼라(630 Bloor St, W, 535-7772)

주최 :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 창립10주년기념

시내교회 초청 배구대회

아래와 같이 시내 교회 초청 배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시 : 1982년 9 월25일(토) 오전 9 시
대회장소 : BURNHAMTHROPE COLLEGIATE(76 KEANE AVE.)
참가비및 신청 : 참가비(팀당 $50)와 신청서를 9 월 4 일까지 본교회로 우송함.
대회방법 : 6 인조(남자선수 4 명 여자 2 명으로 구성)
구체적인 내용은 주장회의때 결정함.
시 상 : 1, 2, 3등 트로피및 전참가자에 참가상 수여.
기 타 : ①9 월11일(토) 오후 7 시30분에 본대회 진행을 위한 주장회의가 본교회당에서 있겠음.
②대회심판은 한인배구협회에서 봉사합니다.
③자세한 문의는 공병화 집사 ☎ 626-5382로 연락바랍니다.

*주 소 : 68 Collinson Blvd., Downsview Ont. M3H 3C3

당회장 김 용 출 목사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韓·케나 共同번영 협의

어젯밤 全·모이大統領 頂上會談

우리技術·케나潛在力 결합

내일 共同聲明 발표

【나이로비=尹國炳특파원】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순방길에 오른 全斗煥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公·非공식수행원을 대동하고 17일하오 (한국시간) 첫방문국인 케냐首都나이로비에도착, 역사적인 아프리카방문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어 이날밤 모이대통령과 頂上회담을갖고 韓·케냐협력증진방안등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광범하게 협의했다.

全대통령은 19일하오 모이대통령과 告別회담을 갖고 케냐방문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에 署名, 발표한뒤 케냐를 떠나 두번째 방문국인 나이지리아로 향발한다.

이날 韓·케냐頂上회담에서 양국원수는 ▲한반도및 아프리카정세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세 전반을 분석, 평가하고 ▲양국간의 既存 우호관계를 재확인 했으며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의 확대방안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원수는 이날 단독회담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과정에서얻은 경험및 기술과 케냐의 잠재력을 결합, 양국의 공동번영을위한 실질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는데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대해 케냐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성원에 謝意를 표하고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더욱 지지해줄것을 요청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모이대통령의 영접을받으며 나이로비에도착, 환영식에서 도착성명을발표했다.

全대통령은 케냐방문이틀째인 18일 상오에는 조모 케냐타대통령묘소에헌화하고 나이로비시청을방문하며 하오에는 僑民을위한 리셉션과 모이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각각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첫기착지인 페낭에서 1泊한 뒤 이날상오 페낭국제공항을 떠나 케냐로향발 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페낭국제공항에서 아왕 페낭州총독내외·림총우州 首席長官내외등 말레이지아측 고위인사와 공관장회의에 참석했던 아세안 5개국및 濠州·뉴질랜드주재공관장·교민대표들의 환송을받았다.

16일 하오 페낭에 기착한 全대통령은 숙소에서 가잘리 말레이지아 외상을 접견하고 저녁에는 아세안5개국및 濠州 뉴질랜드주재 한국대사 7명에게 만찬을 베풀었다.

◇페낭總督영접 받아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16일 하오 말레이지아 페낭국제공항에 도착, 아왕페낭州總督내외의 영접을 받고 악수하고있다. 【페낭16日聯合=聯】

◇모이대통령

法人稅 20~25% 차등課稅

내년 7월이후 假名예금엔 30%高稅率

黨政 7·3補完策 확정

民正黨은 17일 6·28및7·3조치를 대폭수정한 黨政單一補完策을 확정, 발표했다.

民正黨이 이날상오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최종확정한 보완책은 원칙적으로 신규無記名예금 또는 신규무기명유가증권발행을 일체 불허하고 내년6월30일까지 實名化되는 무기명예금 또는유가증권에대해서는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일정액이상을 미성년자 명의로 實名化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수있도록하고 83년7월1일 이후 실명화한 예금에 대해서는 5%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7·3조치이전에 계약된 무기명예금과 유가증권중 내년7월1일 이후에도 만기또는 상환기일이 도래치않는 것은 만기때까지 무기명을허용, 과징금을 면제토록했다.

그러나 만기후에도 實名化되지 않을경우에는 5%의과징금을 물리도록했다.

民正黨은 내년7월1일 이후 가명으로 존속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실명화를 유도키위해 차등세율을 적용, 실명예금의 이자소득세율 10% (교육세포함15%)에 대해 무기명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30% (교육세포함35%)의 고율로 차등과세키로 했다.

보완책은 내년 7월이후에도 實名化되지않는 가명예금중 종합과세대상이되는 거액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최종단계에는1백%과세하여 實名化를 유도토록했으나 그 구체적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이자소득에대해서는 현행처럼 分離課稅하고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종합과세키로했으나 배당소득은 현재의 소액주주등에 대한 分離課稅분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에 합산토록했다. 그러나 2억이상거액예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키로한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책은 法人稅率을 20%로 일률인하키로한 정부의방안을 조정 ▲연간소득5천만원이하의 기업은 20%로 ▲소득5천만원이상의 기업중 공개법인및 비공개 소규모기업은 22%, 비공개 대규모기업 (자본금 1백억이상)은 25%로 차등 과세토록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명목한계세율 60%를 50%(정부안 40%)로 인하하고 저소득층 보호를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하는 한편 법인세·사업소득세등의 조세감면혜택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키로 했다.

7·3조치留保요구 국민, 20일財務委서

국민당은 오는20일 소집되는 국회재무위에서 정부가 취한「1·14」「5·18」「6·23」「6·28」「7·3」조치등 일련의 충격적인 경제조치의 실효성을 집중추궁하는한편 「7·3」조치의 전면실시留保를 요구키로했다.

예비군 訓鍊·申告기피에 최고 1백만원罰金

국방부는 17일 최근 이따금 발생해온 예비군 무기분실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나 탄약이 분실될 경우 관계예비군은 물론 보관책임자에게도 3년이상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경찰서장에게만 위임해온 예비군 무기및 탄약보관책임을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도 맡길수있도록 하여 직장중대별로 철저한관리를 하도록 하고 책임을 지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예비군지휘체계를 강화하기위해 훈련기피자에대한 벌칙도 크게강화,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불응하거나 주소·직장을 옮기고도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지금까지 30만원이하의 벌금을물리던것을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있도록했다.

全谷里 舊石器문화 2백70만년前 추정

클라크博士 진단 "阿아슐리안文化와 同年代"

【全谷=李忠雨기자】세계고고학계의 주목을받고있는 경기도漣川郡全谷面 全谷里 한탄강가의 전기舊石器 유적지 문화가 당초 추정했던 50만년전보다 2백20만년이 빠른 2백70만년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진단을 받았다.

문화공보부초청으로 방한중인 세계적인 고고학자 존·D·클라크박사 (美UC버클리大人類學科교수)는 17일全谷里 구석기유적발굴현장을 답사, 유적지와 출토유물을 면밀히 조사한뒤 상한선을 구석기초인 2백70만년전까지 올려볼 수 있을것같다고 밝혔다.

클라크박사는 全谷里 출토유물이 보통 주먹보다 큰 크기로서 석기의 날을 급히 세워서 만든 긁개(스크레이퍼)와 작은 돌멩이를 깨뜨리고 남은 石核 (푸레이크)이 많은것이 특색이라고 지적하고 유물성격을 종합한 결과 2백70만년전 문화로 공인된 아프리카·아슐리안·생고안문화와 같은 문화발전 단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클라크박사에 따르면 全谷里석기중에서 兩面核石器(아슐리안의 전기구석기)와 있는 돌도끼 (핸드액스) 가로날도끼 (클리버)는 동아시아의 구석기연구에 결정적 자료가되는 귀중한 유물이라는 것. 그는 연대결정을 위해서 全谷里발굴현장의 점토층과 현무암 (용암)을 과학적방법에 의해 조사한다음에 더 확실한 결과를 세계학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最古로알려진 4백만년전의 인류화석을 이디오피아에서 발견, 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클라크박사는 아슐리안타입이 동양에는 없는것으로 알았는데 金元龍(서울大박물관장) 鄭永和교수 (嶺南大박물관장) 등이발표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돼 기쁘다면서 한국에이토록 일찍부터구석기문화가꽃피었다는사실이놀랍다고밝혔다.

◇우리나라 最古의 全谷里구석기유적지를 답사한 클라크박사가 金元龍박사 (서울大박물관장) 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양에 이런 아슐리안타입의 문화가 있었던 사실을 놀라와하고있다. 【韓隆기자찍음】

韓·말聯 外相회담 「太平洋頂上」 논의

【페낭=尹國炳특파원】全斗煥대통령을 수행중인 李範錫외무장관은 16일하오 이곳에서 가잘리·샤피에 말레이지아외상과 회담을 갖고 全斗煥대통령의 태평양정상회담제의에 관해 논의했다.

가잘리외상은 이날 이장관과 약1시간동안 회담을가진후 『李장관이 태평양정상회담제의의 윤곽을 설명했다』고 말하고 『이제의에대한 보고서를 말레이지아정부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가잘리외상은 『한국은 태평양정상회담이 역내의 경제적 긴장과 다른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 캄보디아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李장관은 이날 저녁 이곳에서 아세안5개국및 濠州·뉴질랜드주재 공관장회의를 주재하고 太平洋정상연례회담구상의 배경과 외교적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해 외교노력을 기울여줄것을 당부했다.

李장관은 또 이날 會議에서 지난해 全대통령이 아세안순방에서 거둔 外交的성과의 구체적인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할것을 당부했다.

水害현장3곳視察 金국무총리서리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17일 慶南昌原과 陝川郡, 慶北淸道郡등 3개지역의 水害현장을시찰하고 이재민을 격려했다.

金총리서리는 慶南도청에서 李圭孝경남지사로부터 이번水害는 32명의사망자를 포함, 82명의 人命피해를 내고 1백72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보고를받고 이재민대책에 만전을기하고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金총리서리의 水害지구시찰에는 盧泰愚내무·朴鍾汶농수산·金宗鎬건설장관등이 수행했다.

民正黨추진 民族史觀 재정립 특별機構를 구성

民正黨은 17일상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日本의 역사교과서歪曲사태를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民族史觀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할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中執委는 『투철한 民族史觀을 정립, 그 바탕위에서 國力伸張을 향한 역사적大征에 나서자』는 全斗煥대통령의 8·15경축사의 뜻을 발전, 구현시키기 위해 이 특별기구의 구체적인 기능과 구성등은 李載灐대표위원에게 일임키로 했다.

PLO 週末부터 撤收

이스라엘, 3個요구條件 양보로

【예루살렘16日AP·UPI=聯合】이스라엘정부가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게릴라들의 서베이루트철수와 관련한 그들의 3개 주요요구조건을철회, PLO에 중대양보조치를함으로써 협정체결이 18일께까지공식발표되고PLO게릴라들의철수가금주말께부터 개시될것으로16일알려졌다.

이스라엘 정부관리들이 이날밝힌 이스라엘의 3개항對PLO양보조치는 이스라엘이 ①대부분의 PLO게릴라들이 다국적군의 베이루트입성에앞서 철수해야한다는입장을 더이상 고집하지않으며 ②PLO게릴라들이 철수를 중단할경우 프랑스軍이 베이루트에서 철수한다는 프랑스정부의 다짐아래 3백~4백명의 다국적군소속 프랑스軍이 PLO게릴라들의 철수개시와 더불어 베이루트에 진입토록 동의했으며 ③레바논군이나 다국적군이 PLO게릴라들의 베이루트철수시 이들의명단을작성해야한다는종래요구를 철회한다는것이다.

한편 샤피크·와잔 레바논수상은 이날 베이루트에서 필립·하비브미중동특사와 회담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PLO게릴라들이 금주말께 베이루트에서 철수하기시작할것이라고 말하면서 레바논정부는오는18일각의를소집, PLO게릴라들의베이루트철수를 위한 최종적세부절차문제를토의할것이라고밝혔다.

社會漫評

世界도처에서…

地平線

터널의 굴착기술은 인류의 가장오래된 기술의 한가지다. 고대바빌로니아는 광대한 관개망을 펴려고 수없이 많은 터널을 뚫었다. 또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유프라테스강의 밑을 횡단하는 터널을 뚫었던것은 기원전 2천1백60년께 였다고 추정되고 있으니 그 연원이 얼마나 오랜가를 짐작할수 있다. ▼이들 고대의 터널이 오늘날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으로만 존재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많은 않다. 고대 로마인들이 뚫어 놓았던 터널 가운데는 오늘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것이 허다하다. 근대의 터널굴착은 수송용운하의 개발과 철도터널의 개발로 비약적인 발달을 보게되었다. ▼19세기에 들면서 가장 눈부신 철도터널은 1857년에서 71년까지 프랑스의 모단과 이태리의 발도네치아사이 13㎞를 잇는것이었다. 우리나라 터널도 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하면서 그 공사는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특히 최근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붐을 일으키다시피됐다. ▼이같은 터널·붐은 국토개발과 도시개조의 물결을 타고 불어닥쳤다. 결국고속도로의 개통과 지하철건설이나 산업동맥인 중앙·영동·태백선의 개통은 모두 터널공사를 빼고는 생각할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산지가 많은 우리 형편으로서는 앞으로도 교통망의 확충을 위하여 수많은 터널을 더굴착해야 될것이다. ▼호남선 복선전철공사중에서 가장 난공사로 알려진 노령제2터널이 어제 상오 관통됐다한다. 지난해 5월부터 파기 시작하여 길이 2천3백m의 터널을 4백20일만에 뚫은것이다. 놀라운 터널굴착기술의 진전이며, 향상이라 하지 않을수없다. 그간 꼬불꼬불해서 위험하던 노령역과 백양사역사이의 철로가 앞으로는 직선화하여 운행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한편 문제는 우리의 노후된 철도터널이다. 지금 총연장이 1백40여㎞에 이르고 4백10여개나 되는 그터널의 대부분이 일제때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40년 이상이 지났고 심지어 70년에 이른것도 있다. 그리고 보면 새고 금이 가서 안전성염려되는바 크지만 예산관계로 부득이 방치된 실정인 모양이다. ▼이처럼 오래된 터널의 안전성 문제로 되는것은 나름대로 납득이 간다. 하나 그보다는 최근에 준공된 터널 가운데도 업자들의 과열덤핑공사 때문에 잦은 보수가 겹치고 그에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형편의 터널도 없지않다는 소식이 더문제다. 남은 터널은 일을 당하기전에 손질을 서둘러야한다. 새 터널 또한 비록 그것이 어둠속에 있다 하더라도 백일하에있듯 양심적인 계속공사의 손길로 하자없이 마무리 지어져야할 것이다.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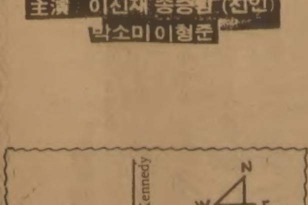
영화의 밤

"꼭 보십시요!" "감동적인 이 영화를"

1. 대종상을 받은
"사랑의 뿌리"
일시 : 1982년 9월10일(금) 저녁 7시
❶씨나리오 최우수상
❷최우수 작품상
⊙주연 : 장동휘, 윤일봉, 황정순 외.

일제 말엽 소록도의 비극과 김정복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교이야기로…
해방과 6.25를 거쳐 생이별했던 주인공 박학구씨의 두 자녀중 한 아들이 조련계의 임무를 띠고… 눈물없이는 차마 볼수 없는 이 영화!

2. 기독교 십자성선교회작품
"사랑의 원자탄"
일시 : 1982년 9월11일(토) 저녁 7시
◎감독 : 강대진
◎주연 : 이신재, 송승환, 박소미, 이형준
활석 손양원 목사 순교실화



장소 : Winston Churchiel Secondary School
2239 Lawrence E.　입장료 : 1불(장내 정리비)

주 최 : 승공문화협회　협 찬 : 교육자협의회, 토론토지부 장로협회

經協이 施惠인가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實相 <10>

6·25特需경기로 再起

技術공여 온갖구실로 制約

무역逆調 230억弗 對日의존 벗어야

◇한때는 日本사양산업의 진출로 활기를띠던 馬山수출자유지역. 70년대전반엔 한국의 저임금에 매료되어 밀물처럼 밀려들던日本자본이 70년대 후반부터는 시들해졌다.

『지금 日本은 신흥부자의 狂氣에 사로잡혀있다. 아시아의 여러나라를 희생해서라도 富를 쌓아올려야하겠다는 욕망에 휩쓸려있다.』…美國의 꿈에서도 가장 추악한 얼굴-이것이 일본의 캐리커처이다』(호간·헤드버그著「日本의 挑戰」에서)

그렇다. 일본경제의 번영은 아시아여러나라의 희생위에 이루어진것이다. 특히 가까운 이웃 한국경제의 희생은 컸다.

애당초 日本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의 본원적축적과정을 거치지못한채 정치적개혁(明治維新)을 통해 산업혁명과정을 속성으로 이룩하려하였던만큼 그 출발점에서부터 구조적 모순을 노출시켰다. 일본자본주의는 처음 농민에대한 封建的수탈과 빈곤한 농촌에서 흘러나오는 값싼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상품에 대항해서 시장을 개척하려했다. 그러나 농촌의 궁핍과 저렴한 노동시장은 日本資本主義에 대하여 국내시장을 협소화시켰고 그때문에 일본자본주의는 발전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찾게되었다.

식민지시장쟁탈전에서 자본이 빈약하고 기술이 뒤떨어진 후진일본자본주의는 선진자본주의에 대한하는 수단으로 인근시장의 무력점령정책을 썼다. 이같은 역사적맥락에서 한국침략이 시작되었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침공·동남아침략으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자본주의는 호전적성격을 띠기시작했고 지금까지 일본자본은 가장 공격형자본으로 낙인이 찍혀있다.

특히 한국을 침략한 일본자본주의는 조악품처리시장을 확보하게되었고 清日전쟁에서 얻은 배상금과 한국에서 수탈할 金을 토대로 金本位에로 이행됐다.

敗戰후 일본자본주의의 호전적성격은 경제침략의 형태로 나타났다.

일본경제가 敗戰의 상처를 수습하고 새로운전열을 가다듬고있을때 韓半島에서는 6·25가 터졌다. 6·25는 밀수를자극했다. 日本人들은 두번다시없는 폐품처리시장의 문이 열리자 官民이 의기투합하여 공공연히 밀수를 장려했다. 大阪은 對韓밀수의 본거지이며 對馬島는 그전진기지였다. 日本은 또이땅에서 전쟁부산물로떨어진 古鐵과 眞鍮(놋쇠)를 값싸게 사들여 이를재생하여 美軍에 대한 군수품으로 팔아먹었다.

6·25特需경기로 재기의 찬스를잡은 일본자본주의는 공격의 화살을 東南亞쪽으로 넓혀갔다.

韓日國交正常化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보면 한창고도성장을 구가하고있던 日本경제가 새로운出口를 찾고있을때 이루어진것이다. 6·25동란으로 재기의찬스를 잡은 日本經濟는 50년대후반부터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고도성장이 지속됨에따라 일본경제는 해외시장의 양적확대뿐아니라 산업구조의 개편에 호응하는 해외시장의 질적심화를 모색하게되었다.

바로이때 근대화의 비원을 안고 공업화의 가도에 발을 들여놓은 한국은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선진일본의 공업력, 특히 자본과 기술을 아쉬워했다. 이처럼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韓日국교정상화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國交正常化후의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경제적강자인 일본의 각본대로 움직여갔다. 日本은 고도성장 대열에서 낙오된 斜陽산업, 바꾸어 말하면 저생산성의 노동집약산업을 원조나 경제협력의 이름으로 한국에 넘겨 선진日本과 후진韓國사이에 垂直的國際分業관계를 정립하려했다.

그결과 청구권자금의 실행을 구축으로하는 韓日經協은 한편에서는 韓國공업화의 발판이란점과 또다른 한편에서는 日本자본의 對韓진출의 거점이란 양면성을 띠게되었다.

수출지향형공업화전략을 택해온 한국경제는 자연히 가까운 선진공업국인 일본으로부터 원자재와 자본재 및기술을 도입해야만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을뿐아니라 언어·거래관행·상관습·가격·딜리버리등 유리한점이 많았다. 게다가 청구권자금을 중심으로해서 몰려든 차관,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은 對日의존을 더욱심화시켰다.

한편 日本은 새로 개방된 한국시장에서 플랜트수출이란 이름아래 노후화된 中古시설의 처리장을 발견했다. 뿐만아니라 국제거래의 경험이 적은 한국업자에게 2~3할씩 값을올려 받는 것은 물론 일본형다국적기업인 종합상사의 농간으로 원자재는 비싸게 팔고 제품은 헐값에 사감으로써 무역적자는 눈송이처럼 부풀어 갔다. 말하자면 일본의 對韓경제협력은 자국상품수출과 긴밀히 결합되어 수출진적인 수단으로 이행되어왔다.

한국정부가 70년대초 점증하는 대외채무상환부담을 덜기위해 직접 투자를 권장하자 몰려든것이 일본의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었다. 그典型이 馬山수출자유지역에 모여든 日本기업들. 일본국내에서는 高임금과 노동력확보에 허덕이던 사양산업이었다.

기술공여도 매우 인색하다. 원래 일본기술이란 오리지널·노하우 (원본기술)가 아닌 카피·노하우(모방기술)가 대부분인데 그나마 제약이많다. 시장독점을 위해 기술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例컨대 S정밀과 미놀타와의 기술제휴는 부품만 팔고 기술전수는없다. 이밖에도 부품도입합구를 제한하는 경우, 시장독점을 위해 수출을 제한한경우, 품질보증을 하지않은 불성실한 기술제공 기술제공의 일부한, 과다한기술료의요구, 경쟁제품의 취급제한등 온갖구실을 다붙여가며 기술공여에 제약을 가하고있다. 브랜드다 외형기술은 주었지만 실질적인 기술전수는 기피했고 그나마 변변치않은 기술공여에도 부품이나 원자재구매를 조건으로하는등 자기나라상품을 팔아먹기에 급급했다.

韓日 국교정상화 이래 지난 17년동안 두나라의 경제협력현황을 보면 借款은 39억2천8백만달러 전체도입액의 18.8%를 차지하고있고 뱅크론은 15억2천3백만달러(26.2%) 또 외국인 투자는 6백18건 6억5천7백만달러로 건수면에서는 전체도입실적의 72.1%에 달하나 금액면에서는 48.6%에 불과하다. 그만큼 영세규모의 사양산업이 중심을이루었다. 기술도입은 1천1백90건으로 전체도입건수 2천1백4건의 56.5%에 달한다.

이같은 자본·기술협력이 토대가되어 韓日 양국간의 무역거래는 엄청난 불균형을 빚어냈다. 국교정상화 이듬해인 66년부터 82년6월말까지 한국의 對日 수출액은 2백32억달러였는데 대해 수입액은 4백62억2백만달러. 17년동안 2백30억2백만달러의 역조를 시현했다.

日本은 큰돈 들이지않고 낡은기술을 미끼로하여 가장수지맞는 장사를 한셈이다.

뿐만아니라 對日무역역조는 앞으로도 당분간은계속될수밖에 없다. 日本자본의 공세에 휘말려 한국의 산업,무역구조는 對日의존이 심화되어버렸고 따라서 산업과무역이 대일의존에서 벗어나지못하면 무역역조는 계속될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것이 분명해졌다. 日本을 극복하는길은 對日경제의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 감정이나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朴炳潤기자】

海外토픽

″敎皇저격은 국제 暗殺음모

◇메메트·알리·아흐자

美誌 9월호서주장

지난 81년5월발생한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저격사건은 불가리아 비밀경찰과 소련비밀경찰(KGB)등이 관련된 국제암살음모의 일환이었다고 리더스·다이제스트지 9월호가 주장했다.

스털링기자는 또『이 사건과 관계한 모든 서방국가들의 관계자들은 저격범 아흐자의 배후세력이 소련인것으로 믿고있다고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밝히면서『교황이 폴란드 자유노조운동의 정신적 대부이기때문에 저격당한것이 틀림없다는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더스·다이제스트지가 폭로한바에 따르면 ▲아흐자에게 위조여권과 무기를 제공한 사람들은 불가리아수도소피아에 본거지를 두고 불가리아비밀경찰의 지령을 받는 한 총기밀수업자의 동료들이었다.

▲아흐자의 테러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키위해 지난77년 비밀은행구좌들이 개설됐으며 이에따라 아흐자는 교황을 저격하기전 12개월동안 유럽지역에서 현금을 치르지않고 최소한 5만달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스털링기자는 아흐자가 불가리아와 관계를맺은것이 지난80년 여름으로 추적될수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아흐자는 살인죄로 복역중 터키의형무소를 탈출한후 소피아에서 50일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황저격당시 사용한 9㎜브라우닝 자동권총을전달받았다. 【뉴욕=外信】

千여m서 말안장에

★말타기選手權대회 우승

스카이·다이버인 짐·템플레톤(28)이라는 사나이가 美아이오와주 매선시의 말타기선수권대회에서 1천5백m상공에서 그의 말안장에낙하하는 묘기를 보여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

그는 1천5백m상공에서 비행낙하 4분30초만에 두눈을 가린채 경기장에 세워놓았던 그의 말안장에 정확하게 내리자마자 떨어졌으나재빨리 다시 말에 올라타고 경기장을 한바퀴 돌아 우승했다.【매선(아이오와州)=外信】

演劇祭

메아리

金聖佑 <編輯委員>

제6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19일부터 막을 연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관객들의 호응이 미지근하더니 차츰 열기를띠어가고 대회운영도 경연형식에서 축제형식으로 바꾼다니 페스티벌로서의 성격이 굳혀져가는것 같다.

연극축제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것이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이다.

아비뇽은 한때 법왕청이 있었던 南佛의 古都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매년 7월과 8월에 걸쳐 파리나 다른도시의 극장들이 여름 바캉스로 모두 문을닫는 시즌을 골라 약 한달동안 열린다. 페스티벌 기간동안 아비뇽에 가보면 그야말로 연극일색이다. 벽이란 벽에는 연극포스터들이 다닥다닥 나붙고 길바닥에는 프로그램들이 비라처럼 흩어져 어지럽다. 피에로차림의 배우들이 누비고다니는 거리는 온통 연극판들로 메인다.

이 한철 아비뇽을 찾아오는 관객은 해마다 15만명을 헤아린다. 공연은 3천2백명을 수용하는 구 법왕청의 안뜰이 주무대고 그밖에도 수도원 마당이나 학교의 강당도 제공된다.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유럽각국 극단들의 공연은 작품수가 30편내지 40편이지만 군소극단들이 창고나 지하실에서 저마다 막을 올리는것까지 합치면 1백편 이상의 연극이 한도시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셈이다. 여기서 성공한 작품들은 가을철 극장들이 다시 문을열기를 기다려 파리등 대도시에서 재공연된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맨처음 시작된것은 1947년으로 올해가 36회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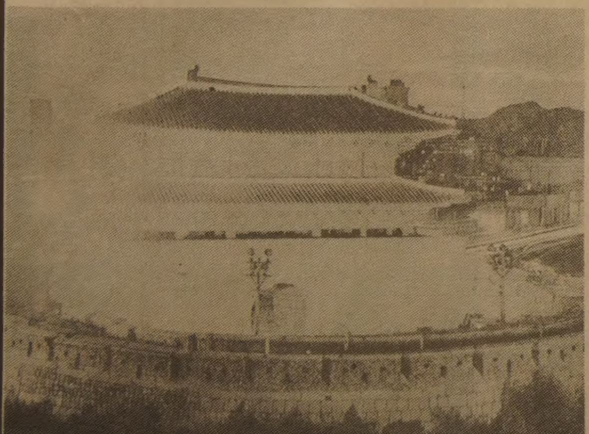
우리나라 연극제가 굳이 아비뇽을 본뜰필요는없다고 하더라도 이왕 경연 아닌 축제의 행사로 바꾼바에야 연극공연에만 그치는것은 섭섭하다. 극작가, 배우, 연출가와 관객이 대화할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연극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루쯤은 연극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푼다든지하여 축제분위기를 돋구면 한결 연극붐에 부채질이 될것이다.

우리나라 연극을 세계에 내놓을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아직 단정적으로 평가할계제는 아니다. 해외진출이래야 77년 東朗레퍼터리극단이 歐美를 순회했고 작년 10월에는 自由劇場이 유럽의 국제연극제에 처음으로 참가한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렌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自由劇場이 공연했을때는 르·몽드紙가 특필할만큼 관심을모았다. 프랑스의 극작가 이오네스코가 한국에 와서 그의 작품인「대머리 여가수」공연을 보고 놀라와했다. 69년 林英雄연출의「고도를 기다리며」를 본 이후 유럽에서 로제·블랭연출의 코메디·프랑세즈, 베를린 극단, 체코의 크레이카가 연출한 공연등으로 이연극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연극의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창작희곡의 所出이 적다. 대신 배우들의 연기는 잠재력이 뛰어나다. 문제는 연출가인데 우리는 연출가의 양성에 너무 투자를하지 않은것 같다. 유럽에 유학생들이 많지만 연극연출을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올해부터 우수작품 한편을 골라 지방순회공연을 시킨다고한다.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 권장할 일이지만 밖으로도 아비뇽 페스티벌같은 국제잔치에 자주 가지고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수준을 알리고 남의 수준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굳이 좋은 창작극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아비뇽 페스티벌을 창설하면서 장·빌라르가 맨처음상연한것이 셰익스피어의「리처드2세」였고 금년여름의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작품역시 므누슈킨이라는 여류연출가가 연출한「리처드2세」라고 들린다.

환 영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진심 으로 환영
합니다

스카보로
김 진 형

제 1 회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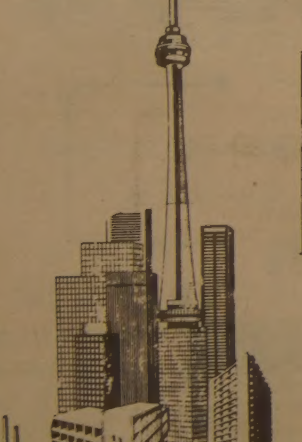
교사연합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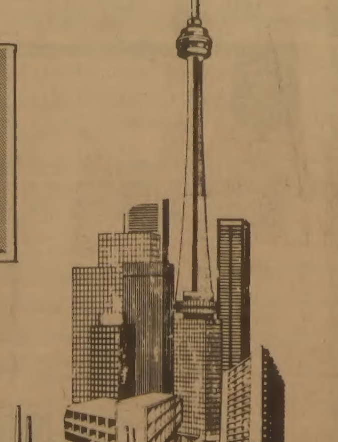
교회학교 교사및 관련자들의 자질향상과 신앙수련및 상호협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1982년9월4일(토) 오전8시30분~오후6시
2. 장소 :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el 535-6864)
3. 대상 : (1)교회학교 유초, 중고, 대학부(청년부)교사
   (2)아동및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및 교우
4. 참가비 : 1인당 $5.00
5. 강사및 강의내용 : (1)김경진 목사(개회 예배 설교)
   (2)김용출 목사(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활)
   (3)박희민 목사(신앙 성장을 위한 교사의 역활)
   (4)임명희 전도사(노래및 율동)
   (5)김상호 목사(아동교육의 심리학적 측면)
   (6)홍신웅 목사(토론토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교육)
   (7)최상봉 목사(헌신예배 설교)
   (8)정경진 전도사(싱어롱)
6. 문의및 연락처 : 이용출 장로 (새한교회) (Res)630-4902 (Bus)633-9420 EXT 486
   신경하 전도사(영락교회) (Res)757-0979 (Church)423-9880
7. 점심 : 벧엘교회 여선교회에서 제공
   간식 : 새한교회, 중앙교회, 한인교회에서 제공
   ※ 베이비 시터 준비되어 있음.

주최 :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연합회
후 원 : 교역자회 장로연합회

환 Congratulations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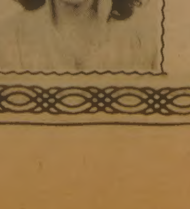


양국 수뇌회담이 두 나라의 우애를 더욱 증진시키고
한·카 유대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관

628 BLOOR ST. W. ☎ 536－0290

대표 나 옥 녀



全國 주요댐마다 貯水量 바닥

山間내륙 비안뿌려 大邱등 給水제한

暴雨는 지나갔어도 물이 모자란다

태풍이 집중호우를 몰고 왔어도 물기근은 여전하다. 이같은 현상은 제11호태풍 세실이 서해안을 스쳐지나가면서 경남과 호남의 해안지방에만 폭우를 쏟고 영남과 강원등 산간내륙지방에는 비를 뿌리지 않았기때문. 게다가 예년에 없던 장기가뭄으로 댐마다 농업용수와 식수를 일찍 대량방류했기때문에 섬진강, 소양강, 남강, 안동, 대청, 영천등 전국의 주요댐의 저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大邱, 光州, 木浦등일부도시에서는 17일현재도 제한급수를 하고있으며 앞으로2개월동안 비가 오지않을경우 겨울식수는 물론 내년봄 농업용수까지도 부족할것같다.

건설부집계에 따르면 태풍세실의 영향으로 지난12일부터 16일까지 경남山淸의 5백37㎜를 최고로 전국에 평균 1백10㎜의 강수량을 보였지만 골고루내리지않고 일부지역에만 집중적으로쏟아져 섬진강댐등 4개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17일현재 40·2%에 불과하다.

이밖에 군소저수지들도 계속된 가뭄과 예년보다 적게 내린 강수량으로 갈수현상을 빚고있다.

이날현재 전국의 다목적댐 저수율은 섬진강댐이 16·6%로 가장낮고 安東댐19·7%, 大淸댐39·2%, 소양강댐51·8%이며 남강댐이 72%로 가장높다.

부산, 大邱등 洛東江유역의 식수공급원인 安東댐의 경우 17일현재 만수위에서 30m가 부족했고 발전가능수위에도 못미치고있다.

大淸댐의경우도 이날 현재 저수량은 5억8천4백만톤으로 총저수량 14억9천만톤에 비해 39·2%에 불과한 저수율을 보이고있다.

이같이 각댐들의 저수량이 부족한것은 이번 비가 경남, 호남지방의 해안을 비롯, 대부분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바다로 대부분 흘러가버리고 실제로 비가 많이 와야할 강원도를 비롯한 댐유역인 산간 내륙지방에는 비가 적게왔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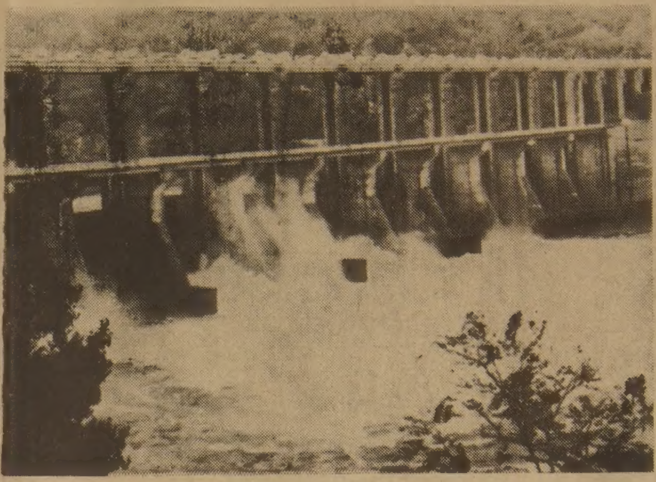
또 예년에비해 강우량이 크게 부족한데 금년들어 15일현재 全州가 5백35·7㎜로 예년의 8백74·2㎜에비해 3백38·5㎜나 적게온것을 최고로 서울이 3백72·5, 清州가3백14·5, 光州가2백9·5, 大田이 3백12·7, 仁川이2백27·1㎜나 적게 왔다.

수자원관계자들은 다목적댐유역에는 최소한6~7백㎜의 강우가 더 있어야 올겨울과 내년봄 식수·농업용수 공급문제가 해결될것으로 추산하고있다.

한편 중앙기상대는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경우 많은비를 기대할수 있으나 태풍이 없으면 큰비도 없을것으로보고 내년봄농사를 대비해서 전국민이 절수운동을펴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1월1일부터 8월15일까지의 강우량 (단위㎜)

지역	올	예년	비고
서울	566·2	938·7	−372·5
仁川	527·4	754·5	−227·1
水原	652·1	821·3	−169·2
清州	474·1	788·6	−314·5
瑞山	606·6	712·0	−105·4
大田	542·6	855·3	−312·7
江陵	497·2	731·1	−233·9
春川	568·3	822·3	−254·0
群山	449·5	684·5	−235·0
全州	535·7	874·2	−338·5
光州	577·0	786·5	−209·5
木浦	593·4	715·0	−121·6
濟州	859·3	888·7	−29·4
麗水	838·3	949·8	−111·5
大邱	598·1	606·0	−7·9
浦項	462·6	604·7	−142·1
蔚山	752·2	741·7	+10·5
釜山	824·9	908·8	−83·9
忠武	945·3	915·4	+29·9



◇衣岩댐의 경우 지난15일 수위가 만수위에 육박, 수문을 열었지만 安東댐등 다른 다목적댐유역에는 갈수현상이심해 농업용수와 식수등의 부족사태를 빚고있다.

水位유지 잘못…放流 태풍被害 가중시켜

南江댐 洪水조절기능 상실

【晋州】태풍 세실의영향으로 南江댐상류인 경남晋陽郡水谷面일대와 하류인晋州·晋陽·宜寧·咸安지방이 큰피해를 입은것은 당시 南江댐사무소가 호우주의보를 무시한채 댐수위를 잘못유지, 홍수조절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댐상류지역인 山清·咸陽·河東등에는 30년만의 대폭우인 평균 3백99·5㎜의 비가쏟아진데다 특히 智異山주변의 山清郡일대에는 50년래의 전국 최고강우량인 5백37㎜라는 엄청난비가내려 댐유입량이 크게늘어나고 있었는데도 南江댐사무소측은 도당국과의 협의에따라 지난14일 진양호의 정대회대비를 이유로 호우주의보도무시한채 댐수위를 만수위인 35m10㎝까지 계속 유지시켜 초당 유입량이 6천t을 넘어서면서 홍수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것이다. 【聯】

木浦, 醫療보험료 18%내려

주민異議 받아들여

【木浦】속보=전남목포시의료보험조합은 17일 8월부터 의료보험료를 18%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보험료인하는 지난 7월1일부터 제2종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지역주민들이 보험료가 너무비싸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조합측이 이를 보사부에 통보, 보사부가 인하조정한것.

木浦市의료보험조합은 지난달 3만3천3백60가구에 1억6천5백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로써 8월분부터는 3천여만원이 줄어들게됐다. 【聯】

봉급 4백여만원 校長이도난당해

【忠州】17일 상오9시50분께 충북忠州市城內洞111의2 농협中原郡지부 앞길에서 中原郡可金面可興里 가흥국민학교장 이인기씨(55)가 농협에서 수령한 교직원 10명의 8월분봉급 4백만2천2백원을 자전거뒤에싣고 가다모두 도난당했다. 【聯】

閑山大捷 기념식

【鎭海】충무공李舜臣장군의 위업과 공덕을 추모하는 제3백90주년 한산대첩기념식이 17일 하오 2시 해군장병을 비롯한 각급지휘관, 해군사관생도및 일반참례객이 참석한가운데 한산도 제승당경내에서 엄수됐다. 【聯】

昌原에 集團피부병 번져

水害끝에 70여명罹患…발에 붉은斑點

【釜山】집중폭우가 쏟아져 물난리를 겪었던 경남昌原市八龍洞 용원마을 일대에 집단 피부병이 번져 17일 하오 현재 이마을 李粉喬씨(52·여)와 金玉子씨(31·여)등 남녀70여명이 발등과 발가락에 조그마한 붉은반점들이 나타나면서 가렵고 붓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을은 15일 늦게부터 물이 빠지기시작하자 이마을 구차임씨(46)가 맨먼저피부병을 앓은뒤 지금까지 계속 이마을 전체에 번지고 있는것이다.

한편 뒤늦게 집단피부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안 昌原市보건소는 보건소장및 간호원 5명이 17일하오부터 용원마을로 달려가 치료에 나섰는데 한편 시당국에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聯】

野生버섯먹고 둘死亡

尙州서…두家口 11명食中毒

【尙州】야생버섯을 먹은 두집가족 11명이 식중독을일으켜 이중 어린이2명이 숨졌다.

경북尙州郡化東面平山里 김용주씨(36)일가족 4명이 지난15일하오7시께 김씨의부인 신성분씨(36)가 산에서 따온 속칭 갓버섯과 수수버섯으로 국을 끓여먹은뒤 2시간후부터 모두 심한설사와 구토를하는등 식중독을일으켜 17일하오4시 김씨의장남 성원군(7)이 숨졌다. 김씨의 차남 석종군(6)은 현재 尙州邑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이다.

또 지난13일에는 尙州郡青里面青下里 정길순여인(38)일가족7명이 야생버섯을 따다 국을끓여먹고 식중독을앓아오던 정여인의 차남 김석훈군(5)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7일하오2시에 숨졌다. 【聯】

濟州에 또擬似뇌염

4일이후 모두6명

【濟州】16일밤10시께 北濟州郡涯月邑上加里 梁기석군(9·더럭국교2년)이 뇌염증세로 濟州市 한일의원에 입원했다.

이로써 濟州에서는 지난4일이후 8명의 의사뇌염환자가 발생, 2명이 숨지고 5명은 중태, 1명은 회복단계에 있다. 【聯】

日照權시비…住民抗訴기각

서울高法"참을수있는건 참아야"

서울고법민사10부(재판장 千慶松부장판사)는 17일 서울西大門區忠正路3街慶興학원(이사장 金一潤)인근주민 尹容男씨(58)등 6명이 이학원을 상대로낸 건물일부철거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일조권과 사생활의 은밀성은 침해돼서는 안되지만 침해의 정도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건물의 사회적 가치등과 관련, 참을수있는한도내의 것이면 참아야 한다』고판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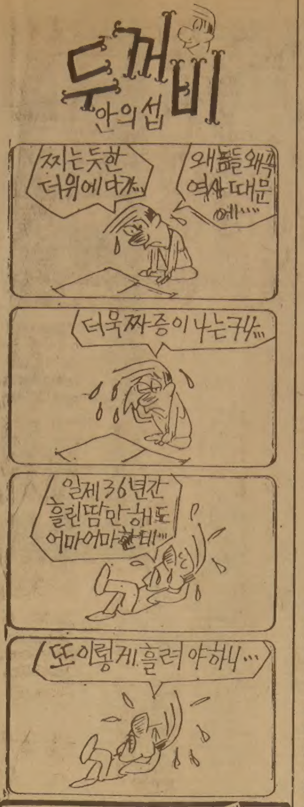
尹씨등은 대지 8백6평에 연건평 5천6백평의 4층콘크리트건물인 慶興학원의 북쪽편에사는 주민들로 지난해 1월 당시 신축중인 이 건물의 3·4층에서 주택내부가 들여다 보이는등 사생활과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 소송을내 그해12월 1심에서도 이번 2심판결과같은 이유로 패소했었다.

주먹크기 돌멩이에 日대사관 窓門깨져

17일 하오2시43분께 서울鍾路區中學洞18 일본대사관 4층 대사접견실 유리창이 대사관의 정문 맞은편 쪽에서 날아온 주먹크기의 돌멩이에 맞아 깨졌다.

이유리창은 가로 1m 세로 1m의 크기인데 이날 날아온 돌로 주먹만한 구멍이 났다.

경찰은 일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편찬과 잇따른 일본 일부각료의 망언에 분개한시민 또는 학생이 돌멩이를 던진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傳承특산물重點육성

내무부 올림픽對備 百20개品目선정

내무부는 17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각지방에 전승돼온 특산물2백38품목중 전통공예품 1백20개품목을 중점 육성키로하고 1차로 安城유기등 42품목을 집중 개발한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품목별로▲전문가및 유관기관의 경영지도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전문 기능공을 양성하며▲중소기업지원자금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을 방출하며▲상설전시관 또는 직매장을 설치, 판로를 넓히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이들특산물에 대한 연혁, 생산공정, 특질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수출기반 다지기에도 도움을 주기로했다.

내무부는 1백20개 육성품목에서 제외된 全州비빔밥등 1백19개토산품에대해서는 각市·道가 자체육성토록했다.

1차로 개발될 품목은 다음과 같다.

◇京畿▲楊州청자▲楊州백자▲驪州분청▲利川백자▲利川청자▲廣州백자▲金浦백자▲驪州도자기▲楊平호리주전자▲安城유기▲江華화문석◇江原▲原州석공예▲旌善이조가구▲原州이조목기▲東草관솔공예◇忠北▲丹陽도자기▲槐山도자기▲丹陽석공예▲忠州석공예▲堤川왕골세공◇忠南▲燕岐인조진주▲韓山모시◇全北▲高敞도자기▲益山화강석▲全州합죽선▲全州태극선◇全南▲康津청자▲全南보석공예▲海南옥석▲潭陽죽제품▲咸平돗자리◇慶北▲聞慶도자기▲達城완초제품▲安東모시▲醴泉활▲浦項화살통▲聞慶화살통◇慶南▲忠武나전칠기▲陜川돗자리◇濟州▲피각류공예▲흑산호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曹溪(왼쪽)·太古두종단대표자들이 20년만에 화해의 악수를 나누며 밝게웃고있다.

曹溪·太古宗대좌

20년만에 代表者간담회

한국불교의 양대宗主인 曹溪宗과 太古宗이 20년만에 화합의 악수를 나누었다.

두종단은 17일하오4시 한국의집(서울中區筆洞)에서 마주앉아『曹溪宗·太古宗 사찰분규 종식에대한 대책협의』를 안건으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두 종단이 이처럼 자율적으로 합법적인절차를 따라 대표자들을 선정, 마주앉은 것은 1962년 통합 종단을 마련한 것 이후 2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 화합의 자리에 참석한 양측대표자는 曹溪宗에서 金天藏、邊密耘、朴鍾熨、朴明熙、金能惠、釋無比스님등 6명과 太古宗에서 朴承龍、朴惠錫、申正浩、金盛一、李相龍、李雲龍스님등 6명.

이 대표자들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종파를 따질 때가 아니며 과거에 있었던 일(분규등)을 모두 잊어버리고 상대방입장과 의견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야 발전이 있다』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털어 놓았다.

또한 이들은『불교종단간의 명분없는 분규 분쟁을 버리고 두종단과 기타 종단이 모두뭉쳐 불교발전을 도모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회의에서는 사찰분규종식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양측 대표가 回數로 참여하는 분규종식처리기구(가칭 종단화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曹溪·太古 양종단은 각각 지난宗會에서 양종단의 사찰분규를 정상적으로 해결해 화합하려는「遊休재산정리추진위원회」(曹溪)와「불교분규종식추진위원회」(太古)를 만들어 화합을 사전 준비해왔다.

성적불량 53명除籍

全南大, 학생경고도

【光州】전남대는 17일 성적이 불량한 학생 53명을 제적하고 지난1학기성적이 평균1·75점(만점4·5점)미만인 6백54명에대해 학사경고조치했다.

학사경고를 받은학생은 1학년이 전체 재학생5천3백9명의 6·8%인 3백62명으로 가장많고 2학년이 3·9%인 1백78명, 3학년이 3·7%인 99명, 4학년이 0·7%인 15명으로 저학년일수록 경고자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이 1백89명으로 가장많았고 농과대 1백17명, 인문대 1백9명, 자연대98명, 사범대64명, 경영대 58명, 법대12명, 예술대 7명순이다.

또한 제적학생 53명은 공대가 22명으로 가장많고 자연대 15명, 농대 7명, 사회대 4명, 인문대 3명, 경영대와 법대가 각각 1명씩이다. 【聯】

한국일보 633·2361

바가지 택시料金

미터器 2배받아

【濟州】최근들어 濟州道내에는 바가지택시요금이성행하고 있다.

17일 주민들에따르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피서관광객들이 늘어나자 일부 택시운전사들이 미터요금을 무시하고 배이상 받아내는등 횡포를부리고 있다는것. 【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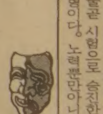
「대추 방망이」

일 몰고다니는 安應模치안본부장

「大事件」후 "본부장 두번 하는셈…"

5척단신에 동안(童顔)、쨍쨍해뵈는 눈매、카랑 카랑한 목소리의 주인공 安應模치안본부장(52·사진)은 입지전의 인물이다. 18살때 고향인 黃海道에서 단신월남, 22살때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해서 각고끝에 경찰의 정상까지 올랐다.

「관운이 좋은사람」이라고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경찰이된동기도 俗離山산판에서 막노동할때「못된 산림감시원이 미워」서였기때문이라니 평범치않고 순경에서 총경까지는 줄곧 시험으로 승진한 정통파 노력형이다. 노력뿐만아니라 의지도강해 독학으로 배운 영어 실력은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할 정도의 수준이다.



월남에 파견근무할때는 위장간첩 李穗根을 사이공공항에서 단신으로 덮쳐 잡을만큼담력과완력도소유했다.

그는「일을몰고 다니는 경찰」이란 평을듣는다. 치안본부장이 된후 통금해제, 수사이의사건신고제, 시계순찰체제도등 숨쉴틈없이 일을 만들어 내더니 급기야는 논란이 적지않은「의무 경찰제」와「계급정년 단축」조치까지 만들었다.

『의무경찰제가 더러 무젯점이지 적되고있는 모양인데...』

『88올림픽까지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따르려면 2만명이상이 보강돼야 합니다』 예산만 있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겠지만…』자신이만든 개혁안을 놓고 그배경을 설명하는 표정에 고충을 참는듯한 빛이 역력하다.

그가 선임치안감 3명을 제치고 시경국장자리도 거치지않고 본부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구설수가 따랐었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宜寧사건. 그이후 그는『본부장을 두번 해먹는다』는 소리도 들었다.

安본부장은 누구보다도 경찰을 잘 알기 때문에「침일」도「정리할일」도 많은지 모른다. 그는 경찰에 대한 개선과정에서 양보할수 없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비위사실은 공사구별없이 척결한다. 직업경찰로의 발전을위한 경찰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두가지.

「차돌」「대추방망이」란 별명도 얻고 있는 그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한다. 【裵琪哲기자】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 Hamburger Shop($65,000): 미시사가의 바쁜 쇼핑센터 내. Rent는 $575(월)이며, 9년간 지속. 비데오게임 2대의 면허(월 순수입 $1,200). 현재 매상은 많지 않으나, 좋은 장소와 Rent & Lease의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매상 늘리고자 하시는 분에게 적합. 일요일 휴업.

◉ Variety & Hardware($59,900): HWY 401과 Kingston Rd 동쪽의 동네 안에 위치. 위에 층에 살림집있으며, 넓은 주차장 있음. 가게크기 1,500 s.f정도. 주매상: $6,000이상 개런티. 이윤 30%이상. 건물매매도 가능.

◉ Gas Station: 월 수입 만불이상. 적은비용. 모든 장비와 살림집. 그리고 2.4에이커 대지포함. 해밀톤 서쪽에 위치. Price Reduced to $259,000 Only.

짧은 시간, 편한 사업

◉ Card Centre($42,000): 가게시간 9:30~5:00(월~금). 이윤 45%이상. 1인 운영가능. 다운타운의 사무실 건물의 지하상가 내. 새로운 통로가 연결될 계획이며, 전망좋음. 작년 순수입 $25,000이상.

◉ Card Centre($59,900): 시간 10:00~6:00(월~토). 이윤 47%. 1인 운영가능. 다운타운 바쁜 쇼핑몰. 2년됐으며, 앞으로의 전망좋음.

◉ Card Centre($150,000): 영업시간 주50시간 미만. 다운타운 Royal Bank Plaza 내. 년 수입 5만불이상.

◉ Variety & Gift($45,000): 시간 8:00~6:00(월~금). 주매상 $3,500~$4,000. 이윤 35%선. 곧 은퇴할 노부부가 운영. 전망좋음.

★기타 : 다른 사업체나 부동산들도 있읍니다.

제2회 메시아 대연주회

● 지휘 : 박재훈 (오케스트라 반주)
● 독창자 : 이주연(S) 김신자(A)
조영호(T) 신경욱(B)
● 합창 : 토론토한인합창단
● 때 : 1982년 12월4일(토)저녁8시
● 곳 : 메시홀(토론토)

※합창연습시작일 : 1982년9월3일(금)저녁7시(BLOOR 연합교회 음악실)

(제1회 연주회 광경)

○본 연주회 합창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9월 3일(금) 음악실에 오셔서 등록을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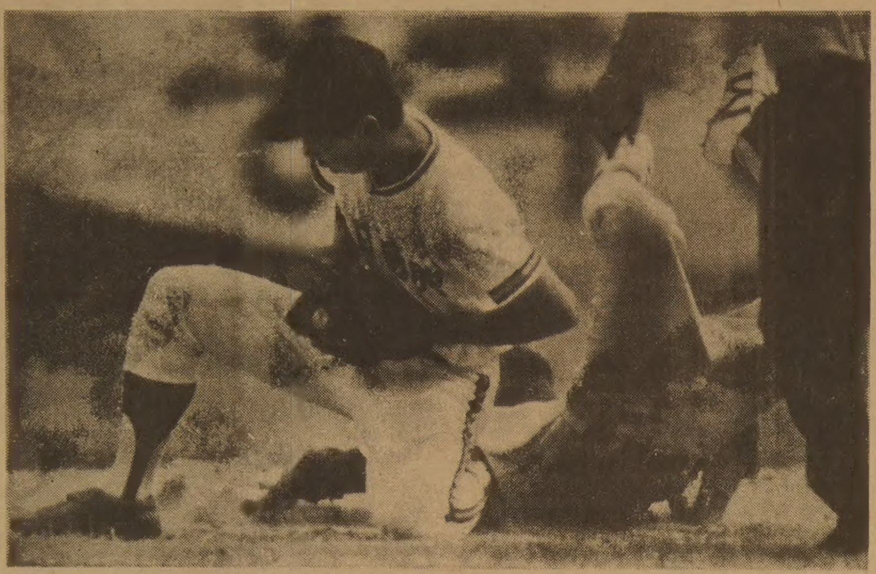
연락처 : 497−0406

在日동포, 馬商꺾고 4強선착

梁視鐵등 13安打 맹폭
9회말 洪壽榮 통쾌한決勝打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在日同胞가 시원한 장타력을 과시하며 馬山商高를 4—3으로 격파하고 봉황대기 4강에 선착했다. 17일 잠실구장서 벌어진 제12회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전 첫날경기에서 在日同胞는 강력한우승후보 天安北一商를 격파한 여세를몰아 9회말5번洪壽榮의 중전결승타를 비롯한 13안타로 馬山商에 4—3으로 극적 승리, 지난77년 4강에 오른이래 5년만에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에이스梁視鐵은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손으로 치면서 3타수 2안타 (2루타2개) 2포볼 1득점을 기록하며 4게임째 완투승을거두었다. 관중 3만여명.



◇馬山商의 2盜 馬山商高공격 3회초 2死후 좌전안타를 치고나간 2번 田基榮이 2루스틸에 성공하고있다。在日同胞유격수는 河信之。

在日同胞—馬山商

팽팽하던 양팀의 투수전은 6회말 재일동포 3번 河信之의 3루타 한방으로 일시에 무너졌다. 5회까지 산발4안타로 물러났던 在日동포는 6회말 선두 3번 河信之가 馬山商 사이드 드로어 鄭命津의 초구를 강타, 좌중간펜스까지 굴러가는 통렬한3루타를 뚫리는 발판을 마련했다. 만타자이며 에이스투수인 4번 梁視鐵은 정면대결을 피한 馬山商 鄭命津으로부터 포볼을 얻어 주자는 1、3루. 절호의 찬스에서 5번洪壽榮이 번트에 실패, 아깝게 3루주자가 아웃됐으나 洪은후 俊은 포볼로 2死만루의 득점기회를 마련했다. 다음타석에 들어선 8번 金義治는 동요의 빛을 감추지 못하는 鄭命津을 두들겨 선제 2타점적시타를 때렸다. 계속된 2死1、2루에서 9번 權仁志가 3루수 강습 내야안타로 3번째 타점을 기록했다.

중반 5회까지 재일동포마운드는 난공불락이었다. 재일동포에이스 梁視鐵은 좌우코너를 찌르는 속구와 슬로커브를 적절히 섞어가며 재치있는 체인지·오브·페이스로 馬山商 타선을 산발로 처리했다. 馬山商 鄭命津도 날카로운 인코스 직구와 슬라이더를 구사하며 폭발력을 자랑하는 재일동포 타선을 5회까지 산발4안타로 선방했다. 재일동포는 4회말 선두4번梁視鐵이 중월2루타, 5번洪壽榮이 내야안타를 날리고 후속땅볼로 1死2、3루의 황금찬스를 맞았다. 전날강호 天安北一商고로부터 결승타를빼앗아 자신만만하게 타석에들어선 林升俊은 鄭命津의 제2구를 날카롭게받아쳤으나 불운하게도 2루수 라이너로잡혀 병살타가되었다.

안타와 포볼로 매회 진루하며 득점을 엿보던 馬山商은 8회초 3번金亨燮, 4번 陳祥泰이 연속좌전안타를 때리고 5번 曺永川이 우전 적시타를 터뜨려 1점을 만회하고 투수악송구, 3루수 실책등 재일동포수비의 잇단에러로 또 1점을 얻어 1점차로 추격했다. 馬山商은 9회초 마지막공격에서 구위가떨어진 梁視鐵을 적공, 3—3동점을 이루었다. 1死후 高永逝이 포볼을 골라내고, 1번 曺鉉珉이 좌전안타를 날리며 2번田基榮이 다시 포볼을골라 1死만루。 3번金亨燮이 날린 타구는 2루와 센터중간의 플라이로 재일동포 2루수가뒤로 물러나며 잡아냈으나 3루주자 高永逝이 재빨리 홈인, 동점을 만들었다. 재일동포는 9회말 공격에서 1死후 2번 裴俊漢이 좌전안타, 4번 梁視鐵이 경원포볼을 골라 만든 1、2루의 찬스에서 5번 洪壽榮이 馬山商에이스 鄭命津의 초구를강타, 게임의 종지부를찍는 굿바이 중전안타를 날렸다.

◇재일동포 梁視鐵 4게임 完投勝 在日同胞를 4강으로 끌어올린 梁視鐵투수。타격에서도 뛰어난 梁은 4게임서 완투승、鐵의 어깨를 과시했다.

◇강호 馬山商을물리치고 4강에선착한 在日同胞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있다。

강호連破…재일동포 突風
定石플레이 펼쳐 우승高地 대시
60年代부터 국내팀과 불뿜는 熱戰
“母國語 잘못해도 동포박수에 행복”

재일동포팀이 다시 한번 모국의 고교야구에 바람을 일으킬것인가. 77년 4강진출이래 침묵을 지켜오던 재일동포팀은 5년만에 다시 4강에 뛰어오르는 저력을 과시, 국내강호들을 위협하고있다. 재일동포는 착실히 다듬어진 기본기에 바탕을둔 정석플레이와 에러가없는 견실한 수비, 겸손한 매너로 국내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日本 각지에서 선발, 급조된 팀이었으나 沖岩·麗南·北一·馬山商高등 강호들을 차례로꺾고 우승고지를향해 대시하고있다.

재일동포 고교야구가 모국 발판을 시작한것은 1956년。그동안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이 한국과 日本야구계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왔다. 59년 모국땅을 밟은 張勳은 이방문을 계기로 강렬한 모국애를 불태우기 시작, 日本프로야구의 온갖 유혹도뿌리치고 자랑스럽게 한국국적을 고수했다. 60년 3회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서 裵壽讚등 동포출신이 처음 한국대표선수로 선발된 이래 金星根·金秀夫·朴正一·韓光弘등도 한국대표팀에 참가, 국위선양에 앞장섰다.

재일동포 학생야구는 국내야구에 유능한 인재를공급하는 파이프라인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朴正一·辛敬基·李壽漢·光弘·尹迎憲등이 선수로 활약했으며 裵壽讚(단대)·金星根(OB)등 아직도 현역감독 코치로서 국내야구발전에 기여하고있다.

동포야구가 국내팬을 열광시킨것은 60년대 후반。張勳이 처음 모국을 방문했을때만 해도 국내고교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으나 60년대 후반 국내팀의 실력이 향상되면서 불뿜는 열전을 벌였다. 72년 봉황기 2회대부터 단일팀으로 참가, 국내팀들과 나란히 技를 겨루어왔다. 동포팀은 그동안 준우승 1회, 4강 4회등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다. 69·70년 2년에걸쳐 모국을 방문, 서브마린 투수로 이름을 떨쳤던 언더드로 金基泰는 76년 봉황기 우수투수인 白英弘·타격상2、3위의 洪新求·崔武雄, 77년 내한했던 金忠夫·金京治·李勝弘등은 아직도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선수들이다.

동포팀이 경기를하는 날이면 3루측 외야스탠드에는 재일한국인 본국청년회(회장 權一皓) 회원 20여명과 1백여명의 국내팬들이 즉석 응원을벌여 동포선수들의 사기를북돋우고있다. 동포팀 주장 林升俊선수는 『모국의 땅을 밟는순간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것을 느꼈읍니다。또 부끄럽게도 한국말을 못해 여러분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슴아픕니다。동포들의 박수를 받으며 야구를 할수있는게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이제 모국이란 것을 실감했읍니다』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해마다 봉황대회를 찾는 재일동포 야구팀은 앞으로도 모국과 60만 재일동포를 잇는 교량역할을 하게될 것이다.【兪興根기자】

KBS盃 축구
雲湖高·全州工 각각 豊生高·中東제압

제1회 KBS배 전국중·고축구대회 고등부패권은 雲湖高와 全州工高가 다투게됐다. 17일 효창운동장서 속개된 대회7일째 고등부 준결승전서 雲湖高는 豊生高를 연장전끝에 1—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또 全州工은 中東과의 대전서 전반25분 1골을 먼저 내주었으나 2분만인 27분께 추대연이 동점골을넣은후 후반16분 추대연이 결승골을 터뜨려 2—1로 역전승했다.

◇제7일전적
▲고등부준결승
운호고 1 (0-0 1연0) 0 풍생고
전주공고 2 (1-1 1-0) 1 중동고

會長盃중고축구
大倫高 행운의 첫覇權

【釜山】大邱大倫高가 승부차기 행운으로 제9회 회장배쟁탈 중고축구대회 고등부의 패권을 차지했다. 16일 釜山九德구장에서 거행된 대회마지막날 고등부결승전서 大倫은 馬山工과연장전을 포함한 1백분간의 열전끝에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채 승부킥에서 3—1로 이겨 대회첫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중등부결승전에서도 釜山中央이 釜山소년의집과 연장전까지 벌였으나 득점하지 못하고 승부킥 4—3으로 이겨 우승했다.

◇개인상
▲최우수선수=柳正偉(대륜고FW) 金樹炫(중앙중FW) ▲득점상=成正佑(마산공고FW) ▲지도상=金基福(대륜고코치) 車英國(중앙중코치)【聯】

亂動야구팬 둘拘束
大邱署 망원경설치 관중체크키로

【大邱】大邱경찰서는 16일 야구장에서 폭력을휘두른 금봉재씨(32·대구시송현동73의10)와 이기화씨(24·대구시 칠성동1가122)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12일밤 大邱 시민운동장에서열린 프로야구 OB—삼성대전서 삼성이패하자 돌멩이로구장정문유리창을 부수고 선수단과 경찰관들에게 빈병을 던지다 입건, 이날 구속됐다. 한편 李永和 大邱시경국장은 16일 大邱시민운동장 야구장에 비디오와 3백㎜망원렌즈를 특별히 설치, 난동관중을 체크하고 동, 빈병등을 던지는 폭력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처벌, 경기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聯】

프로野球도 연기

14일저녁 서울 大邱 光州서 열릴예정이던 프로야구MBC—OB, 三星—三美, 해태—롯데전은 우천으로 모두 연기됐다.

로시 給料투쟁
7만5천달러서 9만달러를要求

【로마13日聯合=特】스페인 월드컵에서 탄생된 새로운 축구스타 파올로·로시는 소속팀인 유벤투스와 한창 급료투쟁을 벌이고있다. 로시와 동료 월드컵스타들인 마르코·타르델리, 클라우디오·젠틸레등은『기암 페이로·보니페르티 유벤투스회장이 7만5천달러에서 9만달러로 급료를 인상하는 우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않으면 계약경신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곳신문들은 이들 선수들은 최소한 프랑스의 미셸·플라티니, 폴란드의 보니에크만큼의 급료를 받아야한다고주장하고 있다. 보니에크의 기본급료는 18만5천달러, 프라티니는 29만6천달러를 받을수있을것으로 보인다. 피아트 자동차회사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유벤투스선수들은 기본급외에 지방경기정규리그,국제경기서 상당액의 보너스를 받는다. 금년시즌에는 모든 리그서 득점을 올리면 8백90달러에서 9백60달러의 보너스를 받도록 되어있다. 로시는「우리는 계약을경신하지 않는한 경기를할수없다. 만일 부상을 입으면 어떤결과가 올는지 알수없다」고 말하고있다. 피오렌티나 팀의 프란체스코·그라치아니, 기안카를로·안토노니는 급료투쟁에거의 방향이 없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192>

양달 ㉗

인재는 시들건 넥타이를 매고있지는 않았고, 신사복이 처음 입은 것처럼 겉돌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촌스럽지 않았다. 그는 적당히 피곤해보였고 그 독특한 쓸쓸한 얼굴대신 남을 얕잡는 것 같기도하고, 비꼬는 것 같기도 한 제법 도시적인 여유를 풍기고 있었다.

『아, 수지씨, 웬일이에요? 설마 날 찾아온 건 아니겠죠?』

그가 어색하게 존대말을 쓰며 억지로 웃었다.

그리움인가? 아아, 그리움인가? 수지는 용건을 잊고속으로 그런 생각을했다. 그런 생각은 달콤하고도 아뜩했다.

『왜 인재씨를 찾아오면 안되나요?』

수지는 생글댔으나 가까이 와서 살피듯이 그녀를 바라본 인재의 눈빛은 어두웠다.

그러나 수지는 그 눈빛 저 밑바다에 처음 자기를 보자마자 반짝 빛나던 그의 반가움이 가라앉아있을 것을 믿었다. 우물에 빠뜨린 물건이 우물속에 있을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믿듯이. 그리고 언제고 마음만먹으면 그것을 건져 올릴수도 있을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제 장난은 딱 질색입니다』

인재가 웃음기 없이 싸늘하게 말했다. 어머 이이가 그동안 세련됐어。수지는 아직도 용건을 잊고 그의 마음에 파문이 일기를 기다렸다. 짜릿짜릿하게 드릴 있는 기다림이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장난에 불과했단 소린가요?』

『용건이 뭡니까?오오라, 결혼청첩장을 가져왔겠군요? 택일 하셨다구요?축하해요』

『택일이요?』

수지는 택일(擇日)이란 고풍스러운 말에 쿡하고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어요?』

그의 음성은 노기를 아슬아슬하게 다스린 거였으나 눈빛엔 비수처럼 섬뜩한 번득였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오해하지 말아요。관심이 있어서 들은게 아니라 저절로 들린 거니까。우린동창이니까 광희의 친구가 많은게 탈이죠。날짜와 장소까지 알고있읍니다』

그는 노기를 벗어나 완전히 평정을 회복하고 있었다。그가 하던 얘기를계속했다.

『기억한대서가아니라 하도 여러 입을통해 거듭해서 듣다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거죠』

『친구들이 짓궂군요』

『별로…더러는 잔인한쪽으로 일부러 그 얘길떠들어대는 친구도 있었지만 본인이 아무렇지도않은데 어쩝니까』

그가 입을 비쭉하며 어깨를 움칠해 보였다. 발을헛디딘 것처럼 수지는 균형을 잃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우물에 빠뜨린 물건이 우물속에 밖엔 있을수 없다는걸 믿듯이 그의속에 그리움이 남아있다는것을 믿으려들었다。설사 그걸 못건져올릴 망정 그것이 있는 한 우물속은 면치못하리라.

수지는 하얗게 웃었다.

『이렇게 출창 길바닥에서만 얘기하긴가요?』

수지는 지나가는 사람과 부닥친 김에 호들갑스럽게 비틀대고 나서 말했다. 인재의 동료 일듯싶은 젊은 사원이 일부러 그의어깨를 툭치고 지나가기도 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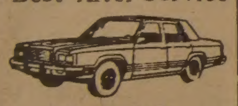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조 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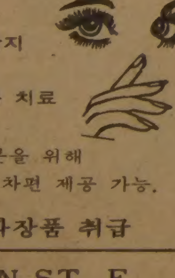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확장이전개업스페샬

과거 Willowdale 지역에서 Downtown 쪽으로 업소를 확장이전해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봉사기간〉 9월10일까지
◎ 40% OFF

—남·녀 커트
—머리 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남·녀 파마
—매니큐 전문
—얼굴맛사지, 노화방지
—신부화장
—잔주름제거, 여드름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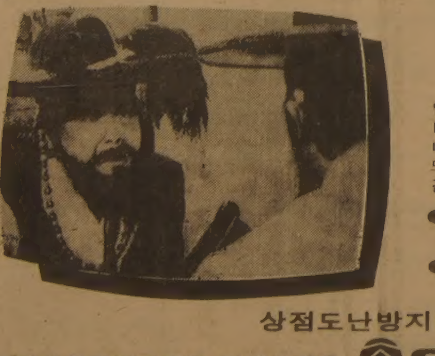
※차편이 불편하신분을 위해
차편 제공 가능.

※불란서 고급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 : 463—9071 (퀸 × 브로드뷰)

여름을 시원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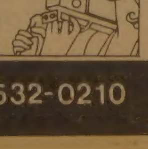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학생모집

82학년도 제2학기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다 음

1. 모집학과 : 신과
1. 자 격 : 고졸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하며 비세례자는 졸업전까지 세례를 받아야함.
1. 수 업 료 : $60
1.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12주간)
1. 수업장소 : 252 BLOOR ST. W. (지하철을 이용하실때는 ST. GEORGE에서 내리시면됨)
1. 개강일시 : 1982년9월11일 오전9시
1.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2년8월1일부터 9월4일 LEE'S PRINTING (2157A WESTON RD) 전화 : 244—2301
1. 기타문의 : 233—2266 · 244—230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캐나다노회
직영 칼빈신학교장 계화삼

全大統領 오늘 케나到着

어제 아프리카 4개國·캐나다巡訪 登程

"亞·阿가 世界史主體로 自由·평화·번영協力을"

出國성명

全斗煥대통령은 16일상오11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金俊成부총리 李範錫외무 金東輝상공장관등 공식수행원18명과 비공식수행원을 대동하고 대통령특별기편으로 金浦공항을 출발、우리나라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등 아프리카4개국과 캐나다 公式巡訪길에 올랐다。全대통령은 17일하오 케냐의 조모·케냐타국제공항에 도착、역사적인 아프리카巡訪을 시작한다。全대통령은 이날 金浦공항에서 가진 환송행사에서 出國성명을 통해『世界史의 客體로서 발전의 뒤안길에 위치해있던 아시아·아프리카人들이 이제는 세계사의 능동적인 主體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이번 巡訪이 그러한 시대를 개막시키는데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수있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이번에 巡訪하게될 5개국은 우리겨레와 나아가 전인류의 理想실현을 위해 우리의 훌륭한 동반자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고『이번 순방을 계기로 旣存 우호 협력관계를 가일층 돈독히 함으로써 특히 아프리카지역에있어서 우리한국의 국제적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이 지난날의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이상을 성취하는것은 自國의 장래는 물론 世界史의 進運을위해서도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하고『그런 의미에서 모든 亞阿국가들이 自國民과 전인류를위해「亞·阿협력의 새시대」를 꽃피워나가야할 責務가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캐나다 지도자층과 양국의 기존우호협력관계를 확대심화시킴은 물론 太平洋지역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뜻깊은 논의를 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케나방문을 시발로 5개국정상들과 6차례의 頂上會談을갖고 이들 나라와의 同伴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韓·阿및 韓·캐나다 협력방안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하며 특히 ▲韓半島및 巡訪國주변정세와 국제정세전반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지지확인 ▲資源과 기술교류등을 통한 경제협력증진방안등을 중점논의한다。

全대통령의 이번 巡訪은 대통령 취임후 美國、아세안에 이어 세번째 해외 巡訪이며 오는 9월1일 귀국한다。

全대통령은 이날 공항에서 丁來赫국회의장、金相浹국무총리서리등 3부요인과정당대표 駐韓외교사절등 내외인사 3백여명의 환송을 받았다。

◇對阿 첫 頂上外交출발 새로운「아시아·아프리카 협력時代」의 성공적인 開幕에 대한 기대를 안고 登程하는 全斗煥 대통령의 이번 巡訪중 특히 아프리카國 방문은 建國이래 처음 있는 頂上外交라는 점에서 우리 國力의 國際化에 뜻 깊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全대통령 내외가출국전 특별기에 올라 환송인사들에게 손을들어 답례하고있다。

共産圈거주同胞에 門戶개방

全대통령、8·15慶祝辭 "過去 억울할수록 國力신장 意志를"

全斗煥대통령은 15일『南北쌍방이 통일을 위한 대화를 진지하게 진행하는 역사적 과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非正常的인 南北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개방을 통해 민족화합을 도모하는 실천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져야한다』면서『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거주하는 우리동포들에게 우리사회부터 먼저 開放할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서울 世宗文化회관에서 열린 제37회光復節기념식에서 慶祝辭를 통해 이같이 선언하고『우리 혈제동포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내왕할수 있으며 대한민국정부는 그에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약속했다。

全대통령은『같은 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강토를 자유롭게 내왕할수 있게 될때 동포애를 되살려 민족화합을 성큼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발전될것』이라면서『하루속히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실현시켜 대화와 접촉의 門이 과감하게 개방되도록 북한측이 우리측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 日帝36년에 대해『침략과 압제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 만으로 막아지는것이 아니며 힘없는 민족이 외치는 平和와 自尊이 얼마나 공허한것인가 하는것은 世界史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고 지적하고『따라서 과거가 분하고 억울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國力신장으로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8·15이전에 겪었던 異民族지배의 고통과 모멸을 다시는 겪지 않는 확실한 보장은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보다 더욱 잘사는 나라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뿐』이라면서『이를 위해서는 투철한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국민화합으로 굳게 다져 그 기반위에서 나라의 힘을 기르기위한 분발과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역설했다。

全대통령은 특히『분열과 갈등 파쟁과 극한대립 和心과 黨利黨略은 국민적 底力의 결집을 불가능하게 하고 國力을 잠식시키는 毒素』라고 말하고『우리가 異民族의 침략과 시달림을 간단없이 받아온것도 분열속에 스스로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음을 깊이 인식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日帝의 銃劍아래 우리선조들이 생명과 재산 자유를 잃고 이름과 말마저 빼앗겼던 쓰라린경험을 상기시키면서『8·15를 맞는 오늘 우리는 國權상실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가를 자각함과 아울러 다시는 그러한비극이 재발되지않도록 모든노력을 기울이자』고 국민의 자각을 촉구했다。

8·15慶祝宴 全대통령 참석

8·15 37주년경축리셉션이 15일하오 慶會樓에서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 丁來赫국회의장、俞泰興대법원장、金相浹국무총리서리등 3부요인과 독립유공자등 1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강력한批判 엄숙히 傾聽" 日外務省서 논평 교과서問題 해결에 全力

【東京15日=聯】일본외무성은 16일『全斗煥대통령의 8·15광복절 연설내용을 일본정부로서는 엄숙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논평했다。외무성은 특히 全대통령이 創氏改名등 구체적역사사실에 언급하면서 일본식민지지배를 비난한것에 특히 유의、『全대통령의 연설은 우방 정부의 최고수뇌로서는 전례없이 강력한 對日비판을 한것』이라고 지적하고 교과서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검정내용을 다시시정하는 길밖에없다는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풀이했다。

日 局長級 회의서 歪曲시정合意못봐

【東京17日=宋孝彬특파원】스즈끼(鈴木)일본수상의 지시에 따라 외무성과 문부성은 17일 실무국장회의를 열고 교과서문제로 비화한 교과서문제를 수습키위한 방안을 협의했으나 어떤형태로든 즉각 수정해야한다는 외무성과 이를 반대하는 문부성과의 의견이 맞서 단일안을 마련치 못했다。

외무성은 ①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대한 반성과 ②그 책임에 입각한 평화국가로의 자세확인 ③외국교과서 내용에 관한 수정등을 골자로하는 수습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문부성은 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 요구에의해 검정 교과서를 고치는 것은 검정제도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대、외무성의 수습안의 제③항을 수정할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즈끼수상의 정부견해형식으로 발표될 교과서문제수습방안은 결국 국장급실무자선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지못하고 교과서의 재수정여부에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日신문들 크게報道

【東京16日=宋孝彬특파원】아사히(朝日) 마이니찌(每日) 요미우리(讀賣)등 15일자 일본주요신문들은 全斗煥대통령이 8·15光復節기념식연설에서 과거 日帝의침략행위를 비난한사실을 1면또는 외신면에 크게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全대통령이 日帝의 강제점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오늘과같이 분단되지 않았을것이라는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하고 全대통령은 교과서 문제에대해 직접언급은 하지않았으나 韓日국교정상화이후 최고통치자로서는 전례없는 강한對日비판문구를 담고있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韓阿路

上半期GNP 성장률 4.6%

생산·수출·소비는不振 內外건설 好調 힘입어

올상반기중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4·6%로 추계됐다。★해설4면

16일 한국은행발표에 의하면 상반기중 GNP는 75년 불변가격으로 6조5천8백70억8천만원에달해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4·6%늘어났다。

올해 GNP성장률은 활동이 반영、생산·수출·소비가 모두 부진했으나 해외건설수입 증가와 국제金利하락에 따른 대외이자지급액의 감소및 국내건설활동의 호조에 힘입어 이룩됐다。

올상반기중 해외건설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증가 했으며 해외이자지급은 19%가 줄어들었다。

특히 국내건설은 정부공장등 산업용건설이 부진했으나 주택건설및 전력과 공업용수 개발사업등 토목 공사의 증가、정부건설 공사의 조기발주등으로 14·1%성장했다。특히 2·4분기중 16·6%의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다。

반면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수출과내수의 부진으로 5·5%와 3·1%의 성장에 그쳤다。

이같이 해외요소소득을 제외한 국내총생산(GDP)은 3·5%가 성장한데 그쳐 지난 상반기중 GDP성장률 4·1%를 밑돌아 GNP성장이 해외부문에 의해 주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보면 농업은 소채류및 축산업의 호조로 9·3%성장했으나 어업은 연근해 어획부진으로 6·6%마이너스 성장했다。광공업도 내수및 수출저조로 3·0%성장에 그쳤다。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8·1%(건설업은 14·1%)기타 서비스업은 4·3%성장했다。

수출은 국제경기의 불황으로 상반기중 6·6%늘어 지난해 같은기간 성장률 21·7%에 크게 밑돌고 있다。

수입도 국내경기의 회복부진으로 3·5%나 줄어들었다。

내일 3黨總務회담 外務委 소집논의

民正·民韓·국민3당총무는 16일 하오 비공식접촉을 갖고 18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어 日本의 역사교과서歪曲을 다루기위한 국회外務委소집일자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총무들은 外務委소집을 다음주초쯤 열것을 주장했는데 대체로 내주초에 열릴것으로 보인다。

巡訪보도위해 同乘

本社정치부 尹國炳기자(차장·사진⑤)와 사진부 朴泰弘기자(사진㊥)는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 순방을 취재 보도하기위해 16일 대통령 특별기에 동승、출국했다。

한편 本社 姉妹紙 코리아·타임스의 趙炳弼정치부장(사진㊧)도 취재차 이날 함께 출국했다。

교과서是正을 要求 韓·日議員연맹對委

韓日의원연맹의 日本역사교과서 歪曲시정대책 小委는 15일 最近世史부분의 왜곡된 표현을 즉각 시정할것을 촉구하는 書翰을 韓日의원연맹 日本측위원들에게 전달했다。

對策小委는 이書翰에서 ▲우리정부가 日本의 교과서검정제도 자체를 비난하는것이 아니라 최근세사의 對韓관계중 분명한 왜곡사실을 시인、이를 즉각 시정할것을 요구하는것이며 ▲日本측이 제안한 양국관계사의 공동연구는 이문제가 해결된후 古代史에서 최근세사에 이르기까지 양국교과서에 나타난 여러문제점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교과서歪曲문제 관련 特使派韓등 논의한듯

外務部、日公使 예방받고

孔魯明외무부제1차관보는 16일하오 고또오·도시오(後藤利夫)駐韓日本공사의 예방을 받고 30여분간 요담했다。

이날 요담내용은 즉각 밝혀지지않았으나 日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조만간 있을것으로 보이는 日本정부의 견해표명이나 特使派韓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地平線

오늘의 世界를「모자이크時代」라고 부르는 미국학자들이 있다。美蘇에 의한 超강대국時代는 60년대에 막을 내렸다。70년대에 접어들면서 多元化란말이 풍미했다。多元化의 時代、多元化의 世界는 TV해설자들에게 입버릇처럼 오르내린 표현이다。간혹 多元化대신 多極化가 쓰여지기도 한다。그러나 80년대엔 世界의 정치、경제 상황을 多元化란 말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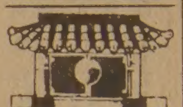
▼얼마전까지 온 세계 사람들의 뉴스가된 포클랜드 전쟁은 多元化의 자(尺)로는 잴수없는 전쟁이었다。美·蘇·中共·유럽共同體(EEC)·日本의 5極多元化체제에 의한 세계질서로는 포클랜드전쟁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아르헨티나는 多元化의 질서에 도전하고 나왔다고나 할까。유럽共同體국가들이 그런대로 행동을 통일해서 정치、경제적압력을 加했으나 아르헨티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미국의 국무장관은 런던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번갈아 방문하면서 끈덕진 중재노력을 폈으나 아르헨티나는 별로귀를기울이지 않았다。

▼아직껏 진행중인 이란─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다。多元化의 질서가 먹혀들어가지 않는 전쟁이다。多極時代에는 2極時代와 달리 블록化가 무너졌다。利害의 多角대립으로 交錯化를 빚어냈다。서로 협력하고 충돌하여 無力化된 多元化의 世界를 신흥中進國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기 시작했다。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한국、사우디아라비아등이 70년대에 고개를 든 나라들이다。아시아서 대만、홍콩、싱가포르 등이 신흥공업국가로서 中進國대열에 나선다。

▼얼마전 全斗煥대통령은 오늘의 世界를 不確實한 時代라고 불렀다。多元化의 질서가 神通力을 잃으면서 不確實性이 그자리를 차지했다。2極、多極이 위력을 잃은곳엔 點들이 散在하게 마련이다。이른바 모자이크 時代다。小國時代라고 이름붙일수 있을 것이다。全대통령이 방문하는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이 아프리카의 굵은 點들이다。多元化의 질서가 퇴색되어가고 있다해서 모자이크 時代로 관칠수는 없다。그래서도 안된다。모자이크 時代에는 相互依存이 더 강조되어야 할게다。

▼全대통령은 모자이크時代 문턱에서 相互依存의 유대를 펼치려고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것이다。相互依存에는 覇權이 들어설수 없다。軍國主義나 民族優越主義 같은것은 더구나 얼씬을 내밀수가 없다。相互依存의 外交에는 모자이크 국가간의 친선협력뿐아니라 나라안의 모자이크(大衆)의 和合이 또한 중요해진다。民心의 和合인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제2회 브랜든스포츠사배쟁탈

추계야구대회

종 목 : 대표팀, O.B팀(1951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일 시 : 1982년9월4일, 5일(토 · 일)오전8시30분
장 소 : 센테니얼파크야구장
참가비 : 팀당 $70
주장회의 : 8월28일(토)오후7시브랜든스포츠사내
연락처 : 박재선 755-6434
브랜든운동구점 598-3732

주 최 : 브랜든스포츠사

후 원 : 토론토한인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한인야구협회

21發의 우렁찬 禮砲속 韓·阿 새時代열어

全대통령 訪阿登程 스케치

○…16일상오 金浦공항에서 열린 全斗煥대통령내외의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巡訪환송식에는 丁來赫 국회의장, 李英燮대법원장, 金相浹 국무총리서리를 비롯, 3부요인과 李載瀅民正黨대표, 劉致松民韓黨총재代行, 金鍾哲국민당총재등 정당대표등 각계 인사와 주한외교사절등 모두 3백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중하게 거행됐다.

全대통령내외는 연도에 나온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이날 상오10시30분 환송식장에 도착, 金총리서리와 朴贊競총무처장관의 안내를 받아 단상에올랐다.

全대통령은 애국가와 21발의 예포가울리는 가운데 3군의장대의 경례를받고 金총리서리와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全대통령은 사열차에 올라 태극기와 순방국기를 들고흔드는 金玉여고생들을 향해 손을번쩍들어 답례했고 金총리서리와는 잠시귀엣말을 나누기도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약15분간에걸쳐 출발성명을낭독.

출발인사에서全대통령은『우리가 세계를향해 이처럼 가슴을 활짝펴고 前進할수있게 된것은 지난2년간에걸쳐 온 국민이 안정과 도약을위해한 덩어리가되어 땀흘려 왔기때문』이라면서 『그동안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애로속에서도 국가발전을위해 온갖 고와 헌신을 묵묵히 다해온 국민여러분에게 깊은 사의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아프리카 巡訪國들이 『더없이 훌륭한 補完的 同伴者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끝으로 방문케 될 캐나다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운 전우이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민간부문등 多方面에 걸쳐 더없이 깊은 유대를 맺어온 전통적 盟邦』이라고 강조.

◇全대통령내외를 태운 특별기가 이륙하는순간 환송나온 국내외인사들이 태극기와 巡訪각국국기를 흔들어 전송하고있다.

3부要人 政黨대표등 各界300여 환송

金총리와 잠시 귀속말 나누기도

출국인사를끝낸뒤全대통령내외는 花童인 許程圭군(서울사대부국6년)과 李恩양(〃5년)으로부터 꽃다발을 증정받고 답례선물을 준뒤 손을잡아주었다.

許군과 李양이 꽃다발을증정하는 동안 군악대가 「고향의 봄」을 연주.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각부장관과 국회각상임위원장, 국회간부, 대법원판사, 각군참모총장, 각계대표인사, 駐韓외교단, 정당대표등과 차례로 출발인사를 나눴다.

각계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全대통령내외는 트랩앞에서 丁국회의장내외, 李대법원장과 그 영애, 주한외교단장인 칼로스·카나우바 브라질대사로부터 壯途를 축하하는 인사를 받은다음 金총리서리와 朴총무처장관의 안내를 받아 도열병 사이를 지나 트랩에 올랐다.

감색신사복차림의 全대통령과 연분홍색 한복의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트랩위에서 태극기와 순방국 국기를 흔들며 환송하는 인사들을향해 손을 들어 답례했으며 11시2분 全대통령내외는 金총리서리와 朴총무처장관의 기내환송을 받으며 대통령특별기에 올랐다.

全대통령내외와 公·非공식수행원을 태운 특별기는 11시17분 金浦공항활주로를 이륙, 아프리카와 캐나다 巡訪길에 올랐다.

○…이날상오9시 좀 지나서부터 金浦공항 국내선청사에는 全대통령내외를 환송키위해 각부처장관과 국회상임위원장단이상인사, 각군참모총장, 외교사절단등 국내외인사들이 도착, 이번 巡訪에관해 얘기를 나눴다.

10시정각 공항청사 방송으로 환송인사들에게 환송식장으로의 입장하라는 안내가나오자 환송인사들은 태극기와 순방5개국 국기를들고 국제선청사 앞쪽에 마련된 환송식장으로 나가 지정된 곳에 자리잡고 全대통령내외의 도착을 기다렸다.

이날 환송식에는 金玉여고 합창단1천여명과 3군의장대, 군악대, 禮砲隊가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았고 합창단과 군악대는 全대통령내외가 식장에 도착할때는 「대통령찬가」를, 국내외인사들과인사를 나눌때는 「선구자」, 의장대사열때는 「조국찬가」등을 연주, 합창했다. 【河長春기자】

全대통령 出國성명<要旨>

본인은 오늘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등 아프리카 4개국 국가원수와 캐나다국 총독의 초청으로 이들 다섯나라에 대한 순방길에 오르게 되었읍니다.

본인의 이들 5개국 순방은 제5공화국출범이후, 美합중국방문 및 東南亞순방에 이은 세번째 순방外交의 하나로, 아프리카대륙의 경우, 국가元首에의한 建國초유의 순방이라는 점에서 우리국력의 국제화에 뜻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모든나라간 그리고 국민간의 거리가 갈수록 가까와지는 「국제화시대」에 살고있읍니다.

따라서 모든나라와 국민들이 상호이해와 친선 그리고 협조를 드높여 地球村의 한 가족으로서 전인류의 무궁한 장래를 공동개척해나가는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의 절실한 세계사적 사명이라고 하겠읍니다.

특히 대부분의 우리 아시아·아프리카국민들은 지난날 異民族에의한 식민통치와 숙명처럼 간주되어온 영속적 빈곤 그리고 끊임없는 對內的분열과 갈등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경험해왔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이제 우리모든 아시아와 아프리카국가들이 自國民과 전인류의 장래를 위해 「亞·阿협력의 새시대」를 꽃피워나가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더우기 우리 아시아·아프리카나라들은 장구한 역사를 살아오는동안 서로를 침략하거나 상호危害를 끼친일이 거의 없읍니다.

이러한 역사적사실은 이두 大陸人들이 서로 더불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발자취인 동시에 향후 어떠한 회의와 거리낌도 없이 『亞·阿협력의 새시대』를 개척해 나갈수있는 정신적 共感帶의 바탕이 될수 있다고 믿고있읍니다.

다가오는 世紀는 지난날까지 예속과 빈곤, 그리고 혼란의 대명사로 여기어지던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세계사의 前面에 나서서 전인류의 自由·平和·繁榮을위해 기여하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간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간에 유지되어온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돈독히 함으로써 특히 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 우리 韓國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나아가 본인은 이들 나라들이 韓半島 평화통일정책등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입장에대해 우리국민의 사의와 우정을 전하고 이와같은 정치적정신적 共感帶를 더욱 깊게 함으로써 우리의 平和統一을위한 국제적 여건을 착실하게 다져나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떠납니다.

본인이 끝으로 방문하게될 캐나다는 같은 太平洋沿岸國으로서「위대한 太平洋시대」의 개막을 위해 귀중하고도 강력한 동반자가 될수 있으리라고본인은믿고있읍니다.

본인은 이기회에 이들 동포들에대한 母國동포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바야흐로 國內外에서 다같이 「세계속의 韓國」을 구현해 나가고있는 우리의 민족적 의지에 대하여 다짐을 굳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역사상 최초로 우리 서울에서 개최될 88년 올림픽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여 우리의 이같은 의지를 확인하고 상호우정과 친선을 노래하는 인류의 祝典이 될것을 확신하면서 본인의 이번 순방이 이를위한 굳건한 礎石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메아리

太極衛星

앞으로 8년, 90년께가되면, 지구둘레 우주공간에 1백만개, 10만톤의 인공물질이 떠다니게 되리란 계산이 나와 있다. 이때문에 우주과학자들은 우주공간에서의 衝突사고를 염려한다. 「우주淸掃위성」을 개발하고, 우주基地에 상시 대기하는 「우주救助隊」를 창설해야 한다는 제안은, 그래서 현실성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세계 여러나라는 인공위성의 등록, 우주비행사의 구조등에 관한 여러 조약을 맺어 국제협력을 다짐한다. 그중 기본조약이라고 할것이 「달과 기타天體를 포함한 外氣圈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다. 67년에 성립되고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이 조약의 제1조는 이렇게 말한다.

『…外氣圈의 탐사와 이용은…모든나라의 이익을 위한…모든 人類의 활동영역이 된다. 모든나라의 外氣圈 탐사와 이용은…자유로와야 한다』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유엔外氣圈探査및平和利用회의가 지금 오스트리아의 서울 빈에서 열리고 있다. 67년에 이어 두번째, 지난 9일에 개막돼 21일까지 계속될 이회의에는 우리나라도 6명의 대표단을 참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는 희미할 수밖에 없다. 赤道상공에 방송통신위성을 띄울 자리(東經110度)를 배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심은 주로 통신관계(第2分科)에 있지만, 우주과학의 기초조차 갖추지못한 우리 처지는 옵저버나 다름이없다. 우리관심분야인 第2分科의 위원장을 일본이 맡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88년올림픽을 앞두고 독자적인 통신위성을 올려야 할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위성本體는 물론, 발사기술이없는 처지라서, 모든것을 외국에 위탁해야하고, 1천억원 넘는 돈이 든다는 난점이 있다.

한 나라가 독자적인 통신위성을 갖는다는 것은, 「통신의 高速道路」를 개통하는 것이나 같다. 이것으로, 텔레비전의 난시청지역, 통신상의 도서·벽지가 일소된다. 방송의 질도 훨씬 좋아진다.

그러나 통신위성이 가져올 변혁은 이에서 그치지를 않는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벌써 2년간 실험위성에 의한 연구를 거듭했고, 84년에는 BS2호를 띄워 실용화단계에 접어든다. 여기서 얻어지는 이득은 관련 산업·기술면에서 더 크다. 90년대 중반이 되면, 일본의 우주통신산업은 45억달러, 지금 일본의 라디오·텔레비전산업과 맞먹는 규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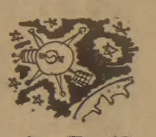
쉽게 말해서, 直接放送위성(DBS)은, 화면을 위성으로 부터 직접 수신하는 高品位텔레비전을 요구한다. 黑白과 컬러텔레비전을 이을 다음 世代의 텔레비전이다.

이에 대비하자면, 독자적인 인공위성에 바탕한 독자기술의 개발이 앞서야한다. 그렇지못한경우, 우리가 다음 世代통신산업에서 일본을 따라 잡을 길은 없다. 모처럼 黑白과 컬러텔레비전 산업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했던 電子산업의 前功이 헛것이 된다.

빈 회의와 때를 같이하여, 國際海洋위성機構의 올로프·룬드버그 사무총장은 위성통신수신용인 半徑1·3m의 소형 접시안테나의 개발을 발표했다. 지진등으로 통신이 두절된 재해지역에 이안테나를 긴급수송하여 통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가말한 「재해지역」을 「전쟁지역」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어떤가. 긴박한 韓半島정세를 돌이켜, 통신위성의 요긴함을 새삼 깨닫게된다.

우리 독자의, 太極마크 선명한 통신위성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큰돈 드는 일이므로 신중을 다해야 겠지만, 앞을보는 결단으로 일이 앞당겨졌으면 한다. 그것은 결코 올림픽만을 위한 것이아니며, 우리에게도 우주공간이 열려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實相 <9>

戰後세대 「自衛隊將星」

처음 將星된 그들은 무얼 생각하고 있나…

「日人節操」 스스로 의심 利害떠나 임무만 충실

일본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두지않고 육·해·공自衛隊간부를함께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防衛大學」을 운영하고있다. 2차대전이 끝난후 37년만인 금년7월1일 이防衛大출신1기생(1957년졸업)이 처음으로 장성이됐다.

敗戰후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장교를 지원했던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으며 장성이되어 앞으로 자위대를 이끌어 나갈 이들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일본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하세가와·게이따로(長谷川慶太郞)씨는 將補(少將)로 승진한 防衛大육·해·공 1기생을 인터뷰했다. 文藝春秋誌9월호에 실린 회견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註】

—장성으로 진급한 소감은.

▲水野智之(陸將補·47·제1空挺團長겸 習志野주둔사령)=처음에는 거븐생각뿐이었으나 고도의 결단이 필요한 위치에있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後藤理(海將補·48·海上幕僚部인사과장)=앞으로 큰 일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계급장이 남의 눈에 안띄게 어깨 뒤에 달고 싶을 정도입니다.

—방위대를 지원한 특별한 까닭이 있다면.

▲水野=나는 滿洲에서 2차대전이 끝날 당시 大連에 있었읍니다. 그때 소학교 5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인의 폭동이 일어나고 소련군이 쳐들어 와 폭행·약탈이 시작됐읍니다. 어린아이들과 젊은 여자들이 도망쳐 다니고 기아상태가 찾아왔읍니다. 패전국민은 비참한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어린 마음에도 독립국에는 절대로 군대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싹텄다고 할까요.

▲後藤=전쟁이 끝난후 臺灣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읍니다. 군인은 물론 무장이 해제되고 일본인들은폭행을 당했읍니다. 용케 살아서 돌아왔다는 생각이듭니다. 당시 소학교 5년생이었는데 그때의 체험이역시 한원인이 됐던것 같습니다.

▲鈴木昭雄(空將補·49·항공막료부방위과장)=『방위의 이념에 불과해…』라는 생각은 나에게는 별로 없었고, 하늘이라든가 바다라든가하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컸읍니다.

—패전국에서는군인이별 인기가없는게 보통인데.

▲水野=그렇습니다. 한때는「세금도둑」이란는욕까지 들었읍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나 부모, 형제, 선생들은 드러내놓고표현은 하지않아도 애정을가지고 이해해 주었읍니다.

▲後藤=제각기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5년간을 복무해 왔읍니다.

▲水野=우리에게 늘 격변하는 시대에 살아 왔읍니다. 소학생 때는「鬼畜米(美)英」이었던 것이 전쟁후에는 하루아침에「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바뀌더군요. 일본인은 절조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일본인들의 생활방식을보면 이론보다도 감정, 현실보다 이상론에 따라 움직이는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야당에서도방위정책을 중시하는 현실지향적인 분위기가 있게 됐읍니다. 이제야 겨우 그렇게 돼야할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입니다.

▲鈴木=東京올림픽때생각이 납니다. 그때 비행기로 五輪마크를 하늘에 그리는 임무를 맡았었는데, 바람이세거나 구름이 많으면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잘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날은 아주맑은 날씨였어요. 최고의 五輪마크가 한참동안 흩어지지않고 東京灣상공에 떠 있었읍니다. 그때 모습이 지금도 머리속에 인상적으로 새겨져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평화라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굳게 느껴졌읍니다.

군인을 갖지않는것이 좋은 사회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防衛隊를 만든 요시다(吉田茂) 수상이 『당신들은 일생동안 표면에 나서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실은 일본이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증거』라고했던 말은 지금도 가슴속에 깊이담아두고 있읍니다.

—4반세기를 자위대에서 보낸 셈인데 돌아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鈴木=항공자위대에들어온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위대 그늘에 묻혀 있는 것이라는 관념속에서도 상쾌한 세계를 경험할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쓸데 없는 돈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굶을 염려는 없으니까요.

▲水野=일부지상주의라고 할까요. 이해타산을 떠나서 다만 일부에 사는 집단에 살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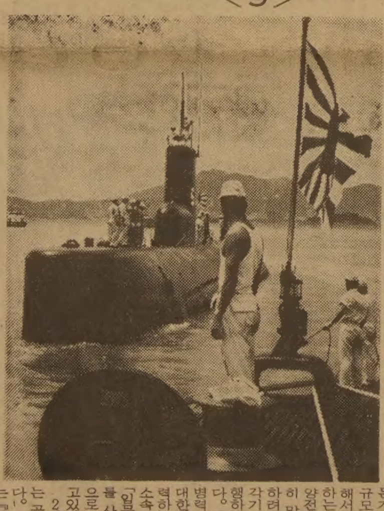
▲後藤=실제로 자위대에 들어오는 대원들은 나를 포함해서 전쟁이라는것을 모릅니다. 단지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대원이 대부분 입니다. 교육을 튼튼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위대란 순수함이 통하고 그것이 좋게 평가되는 사회입니다만 거꾸로 국민쪽으로 보면바로 그런 세상을 모르는 순수함이 두렵게 느껴질수도 있겠지요.

이 인터뷰에서 세사람은 모두 자위대의 존재가치라든가, 방위력, 방위예산의 규모등 정책적인 문제에대해서는 발언을 극력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태평양전쟁당시의 군인들이 흔히 말하던 「天下國家」를 논하려는 태도도 없었다. 제각기 자기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업군인」들이었다. 주어진 예산, 제한된 병력, 장비, 시설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전문직업인 집단에 소속돼 있다. 그러나 이런 「일부제일주의」는 자위대를 사회로부터 고립된집단으로 굳혀버릴 위험을 안고있다.

2차대전때 일본군 장교는 공부를 너무하지 않았다. 교전상대국의 한 장교는『하사관은 우수하지만 장교, 특히 고급 지휘관이 갖추어야할 전략전술 능력이 국제수준에 훨씬 못미쳤다』고 일본군장교를 혹평했다. 이것은 당시의 일본군대가 모든것을 비밀제일주의로처리, 군사문제를 공정하게 비판하는 활동을 억압하면서 연유한다. 비판없이 진보는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자위대는 징병제가 아니다. 대원을 지원하는 청년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문에 각부대는 홍보활동에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런 노력이 차차 일반국민속에 오늘의 자위대 지지분위기를 이루어 놓았다. 이런 모습을 전쟁때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만큼 개방적이다. 그러나 일본을 둘러싸고 극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변화에 대응한 올바른 방위정책을 국민전체의 의사로 수렴하는 것은 군사문제의 이론적, 과학적 연구외에 외부와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때만 가능하다.

【정리=朴贊式기자】



◇옛 해군기 쓰는 일본 海上自衛隊. 2차대전 패전후 37년만에 현대적 군대로 모습을갖춘 일본 자위대는 「일부제일주의」의 폐쇄적 전문 직업인 의식속에 고립돼있다.

海外토픽

화장실서 8일갇혀

★강도만난 두노파구조

파리의 한아파트에 침입한 강도가 66세의노파와 94세된 노파의 어머니등 두노인을 아파트화장실에 감금해놓고 금품을 털어달아났는데 이두 노파는 8일만에야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났다. 8일동안 화장실의 수도물로만 연명한 두노파는 의사의 진찰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두노파는 화장실에 감금된 후『사람살리라』고 울부짖었으나 이웃에사는 아파트주민들이 거의 바캉스를떠나고 없어 뒤늦게 찾아온 친척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된것. 【파리=AP】

뉴욕貯水池에악어

★몇년지나 실지로생포

뉴욕시 하수시설에 악어가 살고 있다는 기사들이나온지 몇년후 실지로 작은 악어 한마리가 뉴욕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시청당국을 경악케했다고. 뉴욕시의 급수원이되는 켄시코 저수지에서 악어를보았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시청 환경보호국의 한관리는 도저히 믿을수없는일이라면서 헛소문으로 간주했으나 수색작업에 나섰던 시청직원들이 저수지 바위에앉아있다 물속으로 도망쳐버린 악어를 실지로 목격, 확인하는 바람에 변명의 여지를 잃어버렸다는것. 후에 악어는 파충류 전문가와 악어잡이에 경험있는 한교수에게 생포되어 동물원으로 넘겨졌다고. 【뉴욕=AP】

出演열망 남자해골

★햄릿公演때 사용할듯

영국의 로열·셰익스피어극단은 다음번 햄릿공연때 생전 무대위에서보기를 열망했던 한남자의 진짜해골을사용할지 모른다고 극단대변인이 15일 밝혔다. 이 남자는 금년6월 사망한 안드레·차이코프스키라는 폴랜드태생의 피아니스트로 그의 친지들에 따르면 그는 생전 셰익스피어를 열렬히 동경했으며 항상 그의 연극에 출연하기를 희망해 왔다는 것. 이같은 그의 희망에 따라 그가 사망하자 친구들과 친지들은 장의사에부탁하여 그의 해골을 분리해내 깨끗이 씻은후 상자에 싸서 셰익스피어극단의 본부로 보냈던 것. 【런던=UPI】

◇유령모습으로 "계몽"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美공군기지의 안전담당관인 J·D·프레이 공군 대위가 연휴가 있는 주말 금요일마다 무시무시한 中世유령의 모습으로 변장, 『안전벨트착용』『안전운전』에 관한계몽활동에 나서고있다. 【밴덴버그기지 14日AP聯合】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241-3952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예 : Allen's Pure Apple Juice 48온스 $13.77 8월16일 ~ 8월28일)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거꾸로 가는 「電話행정」

內務部 郡지역 교환시설 機械式 강요

性能좋고 값싼 電子式 외면
몇년후 또 바꿔야…豫算낭비

내무부가 전국 군청의 전화교환시설을 바꾸면서 성능이 좋고 값이 싼 현대식 전자교환방식대신 재래식 기계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지시, 시행착오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내무부 지시대로 기계식 전화교환시설을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뿐만 아니라 몇년 지나면 다시 전자식으로 바꿔야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는것。내무부는 지난 81년부터 전국 시·군지역의 전화시설을 현대화하기로 결정, 시지역은 전자식이나 기계식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군지역만은 기계식교환방식을 채택하도록 지침을 내린데 이어 금년에도 똑같은 지시를 내림으로써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監査院 지적받고도 철회않고 고집

내무부의 시·군전화교환시설교체방침은 낡은 공전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현대시설을 하고 있는것인데 특정한 재래식을 지정하는것은 예산회계법상으로도 있을수 없는 처사로 최근 이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감사원지적을받고도 종전의 지시를철회하지 않고있어 전국 1백39개군에 모두 이를 강요할 경우 예산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계식은 전자식에 비해▲회선당시설비가 20%정도 비싸고▲시설면적도 배이상 차지할뿐만아니라▲접속소요시간도느리고 정확성이 낮으며▲고장률도높고▲수용회선수가 적고▲수명도 짧아 체신부도 이미 83년말까지만 사용하고 84년부터는 공급자체를 금지시키기로한 구식교환방식이다。

◇기계식과 전자식의 성능비교

구분	비교사항	기계식	전자식
①신속성	교환접속소요시분	느림	빠름
②정확성	접속안전도	낮음	높음
	통화품질	비교적나쁨	좋음
③안전성	고장발생률	비교적높음	낮음
	교환망구성및 번호계획	어려움	용이함
	각종자료수집기능	적다	다양하다
	교환기 구조	단순함	복잡함
④서비스제공	현대식 특수서비스	없음	다양함
⑤경제성	회선당가격	비교적고가	고가이나기술개발에따라점차저렴화추세
	수명	짧다	길다
	점유면적	아주크다	적다
	선로비(국간)	크다	적다
	유지보수비	많이소요	적게소요
⑥운용면	운용인력	많이소요	적게소요

기계식교환시설은 전자식에 비해 대당 6백~8백만원이 비싸다。

시설가격은 회선에따라(130~150회선) 차이는있으나 전자식이 공사비까지포함해 평균 3천5백여만원인데 비해 기계식은 4천5、6백만원이나돌아 평균 1천여만원이 비싸다는것。

이때문에 지난한해동안 새로시설한 43개시군중 29개소가 기계식을 채택、3억여원의 예산을 더 낭비한 결과를 빚었다。

내무부관계자는 군지역에 기계식교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것은 지난해 9개관련부처 실무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기계자체가 전자식보다 덜민감해 회선에고장이 나도 전체적으로 확산되지않고 냉난방시설등 시설이까다롭지않다는 점등을들어 고집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선관계자들은 기계식은 고장률이 적다고는하나 설치장소를 많이 차지하며 내선동시통화율이 60%인데비해 전자식은 1백%나돼 많은 통화량을처리할수있고 전력소모도 4백20회선기준으로 전자식은 7백W인데비해 기계식은 1천4백W이며 수명도 반영구적이어서 발전된 전자식을채택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기계식의 불합리성이 드러나자강원도와충남지역에서는이지시를묵살하고 값싸고 성능이 우수한 전자식을 채택했지만 여타지역은 기계식 교환대를 설치하고있는실정이다。【裵琪哲기자】

전국서 64명 死亡·실종

태풍세실 집중豪雨 財産피해 2백13억원

◇堤防복구 전남 昇州郡 海龍面 狐頭里주민들이 폭우로 유실된 마을앞 제방을 복구하기위해 가랑비를맞으며 일하고있다。【聯】

태풍세실이 몰고온 집중호우로 16일하오까지 전국에서 40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됐으며 42명이 부상하고 6천2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또 농경지 도로·제방등이 유실되거나 선박·가옥등이 파괴되는등 전국에서 2백1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의하면 재산피해는▲건물피해가 2천2백93동(전파1백28동、반파1백41동、침수 2천24동)▲선박전파 9척▲농경지침수 2만8천14ha、매몰 8백36ha▲도로매몰 2백55개소 3천5백93m▲하천손괴 6백47개소에 14만9천4m▲항만 7개소▲어항10개소▲수리시설 5백54개소등의 파손 또는 유실이다。

山淸 최고5百37mm

경남山淸郡矢川面에 5백3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우리나라 하루 강우량 기록(1924년7월 黃海道남천 4백77·5mm)을 깬 경남지방에서는 사망 31명(陝川12·昌原6·蔚山4·梁山3·統營1·固城1·泗川1·密陽2·馬山1)、실종11명(陝川5·金海2·昌原1·馬山1·晋陽1·山淸1)등 42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경북지방에서는 사망5명(月城3·高靈1·淸道1)、실종11명(月城8·永川3)、전남지방에서는 사망3명(求禮1·高興1·光陽1)、부산에서는 사망1명·실종1명 淸州에서는 실종1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평균 강우량 2백60·7mm의 경남지방에서는 건물73채가 전파되고 91채가 반파되는등 3백33채(부속건물포함)가 피해를 입어 6백12가구 2천7백27명의 이재민을 냈고 논 1만9천2백30ha가 침수、3백31ha가 유실되는등 9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북지방에도 淸道郡角北面이 4백3·2mm를 최고로 高靈 2백72mm、達城 2백32mm등 평균 1백25·9mm의 비가내려 52명의 이재민과 42억8천2백69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大邱 건물87채全破

또2백34·6mm의 비가 내린 大邱市는 농경지 1백5·75ha가 침수 또는 유실됐고 건물87채가 전파 또는 반파됐으며 도로3개소 31m、하천5개소 3백35m、교량1개소、수리시설 3개소가 유실돼 1억4천4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남지방은 光陽3백71·4mm、順天3백41·2mm등 평균1백35·6mm의 비가 내려 3백19명의 이재민을 냈고 농경지 3천9백20ha가 침수、41·3ha가 유실매몰됐으며 건물38채、선박5척、파손도로19개소 1천7백79m、교량3개소、수리시설8개소、하천제방 24개소 3천45m등이 붕괴 또는 유실돼 7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輸入 쇠고기값 引上

어제부터 6백g 1근 3천2백원

수입쇠고기값이 16일부터 6백g당 3천원에서 3천2백원으로 오른다。

농수산부가 수입쇠고기의 소비자가격을 이처럼 인상한 것은 한우쇠고기값이 6백g당 4천3백원선을 유지하고 있는데반해 수입쇠고기 가격이 3천원으로 크게 낮아 수입쇠고기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막고 값이떨어지는 돼지고기의 수요를 촉진시키기위한것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수입쇠고기는 지난해9월이후 6백g당 3천원씩에 판매、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모은데반해 돼지고기는 최근 출하량이늘고 여름철 소비 둔화때문에 돼지고기값은 지난7월 2백원이 내린데이어 8월들어 다시 2백원이내려 서울의경우 16일부터 6백g당 1천9백5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수입쇠고기소비는 전국1일평균 연초의 6백두수준에서 7월에는 1천50두、8월들어서는 1천2백두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光復會·한글학회등 各團體 日의 교과서歪曲 규탄대회

光復會·한글학회등 사회및 문화단체들은 37번째맞은 광복절인 15일 日本교과서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일본의각성을촉구했다。

▲光復會(회장 金相吉)회원 8백여명은 광복절인 15일 하오1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서울파고다 공원앞에서「역사왜곡 일본규탄대회」를 열고 日本수상에게 전하는 항의규탄문과 全斗煥대통령에게 드리는 글등을 낭독했다。

▲大韓노인회 17개지부 1천여명의회원은 광복절인 15일상오10시께 서울 南山공원 安重根의사동상앞에모여「日本의 역사왜곡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글학회(이사장 許雄)는 15일상오11시 서울新聞路1街 한글학회회관 강당에서 회원·학생등 3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에 이어「일본의역사교육 거짓꾸미기 성토대회」를 가졌다。

日역사 歪曲에 잇단血書 항의

광복절인 15일 서울시내에서 열린 각단체의 규탄대회에서 3명의시민이 혈서를써 일본의역사왜곡에항의했다。

이날하오 2시30분께 서울鍾路2가 파고다공원앞 가두에서 광복회원 崔상화씨(45)가 회원8백여명과 규탄대회를 마친뒤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민족단결·왜놈박살」이라고 써 울분을 터뜨렸다。

또 하오3시30분께 鍾路區주한日本대사관앞에서는 유원상노인(80·道峰區孔陵2洞332)과 李명복씨(58·道峰區上溪2洞107)도혈서를 써 일본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설악산 朱木도벌한 용의자둘 身柄확보

【東草】속보=雪嶽山彌失嶺주목 도벌사건을수사중인 春川지검東草지청은 16일 그동안 유력한용의자로 지목、수배해온 高모(54)崔모씨(39)등 2명의신병을확보하고 다른 高모씨(55)를 검거하기위해 高씨의 연고지로 수사요원을 급파했다。【聯】

◇全大統領 환송물결 『안녕히 다녀오세요』세종문화회관앞에 환송나온 여학생들이 태극기와 5개국국기를 흔들며 대통령의 장도를 축복했다。

늦더위 당분간 계속

태풍세실 빠져나가…가끔 소나기

제11호태풍세실이 완전히 빠져나감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흐리고 소나기가 오겠으며 당분간 30도이상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것같다。

중앙기상대는 또 우리나라쪽으로 접근이 우려되던 제12태풍 도트도 홍콩북동쪽 2백80km 해상에서 열대성저기압으로 변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한편기상대는 경남山淸郡矢川面의 5백37mm를 비롯 전국곳곳에 장대비가 내린것은 우리나라가 태풍의중심권에는 들지 않았지만 이번태풍이 중심권밖으로 많은양의 비구름을몰고와예상밖의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12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1백mm이상 폭우가 내린지역은 다음과같다。단위mm。

▲서울1백26·6▲水原1백3·5▲仁川1백12·1▲江華1백83▲楊平1백62·5▲春川1백23·4▲洪川1백53·9▲大邱2백45·7▲永川1백53·7▲晋州2백17·4▲忠武2백77·3▲蔚山2백51·4▲咸安3백8·2▲居昌2백5·5▲陝川2백67·9▲密陽2백16▲南海2백6·9▲昇州1백31·5▲長興1백59·5▲海南1백8·5▲莞島1백45·6▲麗水1백96▲濟州1백54·4

嶺湖南 수해주민 각종地方稅 감면

내무부는 16일 영·호남 수해지역 주민에게 각종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각시도에지시했다。

지방세 감면기준은▲파괴된 주택·선박은 재산세를 면제하고▲복구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면제하며▲농작물이 70%이상 감수된경우 농지세를 전액면제하며▲지방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慶全線일부 不通 浸水地 복구안돼

【釜山】태풍 세실에의한 폭우로 지난 14일밤부터 불통됐던 慶全線 3곳 가운데 양보역―횡천역 사이는 16일상오10시현재 복구작업을 끝내 개통됐으나 양보역―북천역 사이는 계속 불통되고 있어서 晋州발 順天경유서울행은 계속 운행하지못해 승객들은 三浪津역에서 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順天발晋州행은 계속 묶여 있다。【聯】

寶物文集등 도난

西厓선생 遺物전시관에 도둑

【安東】16일 새벽 1시부터 5시사이 경북 安東郡豊川面河回洞656 西厓柳成龍선생의 유물전시관인 영모각에 도둑이 들어 전시관에 보관해둔 보물160호 정원전교 1권과 西厓선생 선문첩1권등 2권이 도난당한 것을 소장자 柳寧河씨(67)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따르면 범인들은 영모각 뒷담을넘어 들어가 영모각의 출입문을 절단기로자르고 전시실에 침입、전시실 왼쪽 첫째 진열대의 열문을 부수고 이유물들을 훔쳐 달아났다는것。【聯】

實刑14명 抗訴 美文화원 放火사건

【釜山】부산美文화원 방화사건 관련피고인 16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金鉉奬 文富軾 崔基植신부등 14명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文吉煥(36·原州연우원관리인·집유4년) 李昌馥(43·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회계·집유3년)는항소를 하지 않았다。

항소를 한 14명의 피고인들은 지난11일의 선고공판에서 사형에서 징역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聯】

被告32명 전원抗訴 李·張어음사건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관련피고인 32명(법인체 共榮토건포함)전원이 항소장제출 마감일인 16일까지 모두 항소했다。

韓一合纖 金翰壽회장

韓一合纖金翰壽회장(사진)이 16일 상오 10시40분 서울龍山區漢南洞737의42자택서 별세했다。향년 6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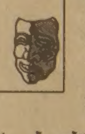
56년 慶南毛織、64년 韓一合纖을 각각설립한 金회장은 34년동안 줄곧 섬유업종만경영해왔고 지난73년 국내단일업체로서는 최초로 1억달러수출기록을 세웠으며 全經聯부회장 韓國梳毛紡協會회장 貿協理事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張福連여사(54)와 6남4녀가 있다。

발인은 20일상오 會社葬으로 장지는 慶南金海市內洞선영。☎794-8888

「마담 檢察」

檢察인사居仲役 李明熙 大檢차장



검찰의 인사가 있을때마다「누구의 인사」인가라는 입방아分析이 따른다。지난날의 검찰사를 보면 장관이 제구실을 하면 인사에 장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고 검찰총장이 드세면「총장의인사」라는 투의 세평이 나돌곤 했었다。그렇다면 전체검사의 절반이상이 움직였다는 최근인사는 누가 主役이었을까。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을듯하다。인사내용이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專橫者가 지금은 없는 싯점이기에 누구라고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전횡」이 없다면 그것은 順理를 말하는것이고 양보를 뜻하게되며 전체의사의 수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여러가지로 유명하다는 考試8회가 長官이고 총장인 검찰에서「獨走」가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돋보이는 居仲役이 있었을 것이다。그래서인지 大檢차장 李明熙씨(49·사진)를「마담검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든지 까다로울수도있는 두상사의 의중을 두루살펴 차질없이 검찰의 살림을 꾸려간다해서 나온 닉네임이다。그는 이번인사에서 자신은『보좌역할을 했을뿐이다』고 몇번이고 강조한다。그러면서도『묵묵히 일하는 사람、조용히 수사하는 사람을 우대했다』는 점을 밝히는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두상사와 자신의 견해가 일치돼있음을 은연중 과시한다。

실제로 그자신도 60%이상을 시골에서만 근무한「시골부사」출신인데 이번인사에서 임관후 8년이 넘도록 서울입성을 못해본 검사는 예외없이 서울땅을 밟았고 반대로 몇년씩 서울에서만 맴돌던 귀족검사들은 시골냄새를 맡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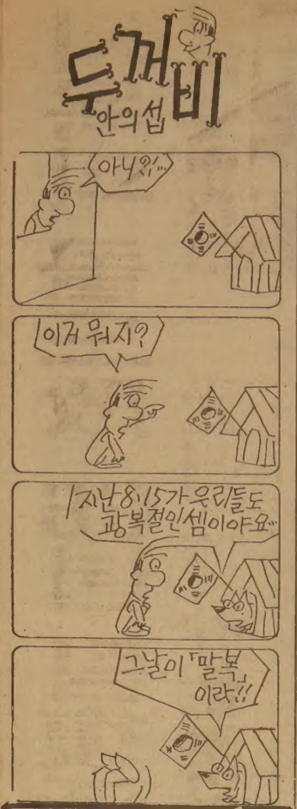
묘하게도 이번 인사는 전임 李鍾元장관이 지난해4월 상층부를 뒤흔들어놓은후 하도 반발이 거세 후속으로 하려다 못했던 인사라는게 정설이다。

대쪽性品의 「非1人者」가 만든 順理

그렇다면 누가해도 해야할 이번 인사는 난산일수밖에 없었다。그는「괴짜」에 가까운사람이다。대쪽같은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고있다。그런 이상주의자는 영악한 젊은 검사들에게는 소설에나 남아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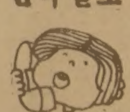
사건을 맡으면 어떤 압력이나 청탁에도 굽힘없이 밀고나가는 섬미와 제1인자가 아닌 위치가 오히려 외부입김없는 인사를 참신하게됐는지도 모른다。

어느때보다 적은 인사잡음은 전혀 우연의 소산은 아닌것이다。【崔[illegible]植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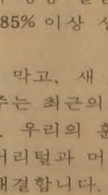


☎533-2361

보십시요
새 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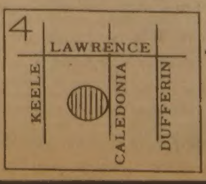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Aug. 16 - Sept. 4/'82

		SPECIAL
Rowntree Reg. Bar	36x40¢	$ 9.99
Lowneys Reg. Bar	36x40	9.99
Cadbury Reg. Bar	36x40	9.99
Hershey Reg. Bar	36x40	7.99
Neilson Family Bar	24x99	14.34
Kisco Kids	100x5	3.05
Yorkie Bars	40x49	11.99
Vicks Coughdrops	20x40	4.99
Bubble Yum	18x30	3.00
Big leauge Chew	12x59	4.59
Y & S Twizzlers	60x10	2.65
Lifesaves Candy	24x30	4.55
Dable gum cigarettes	36x25	5.49
Candy Cigarette	48x10	3.15
Whites Swan Towels	18x2'	17.50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慶北高「10년牙城」무너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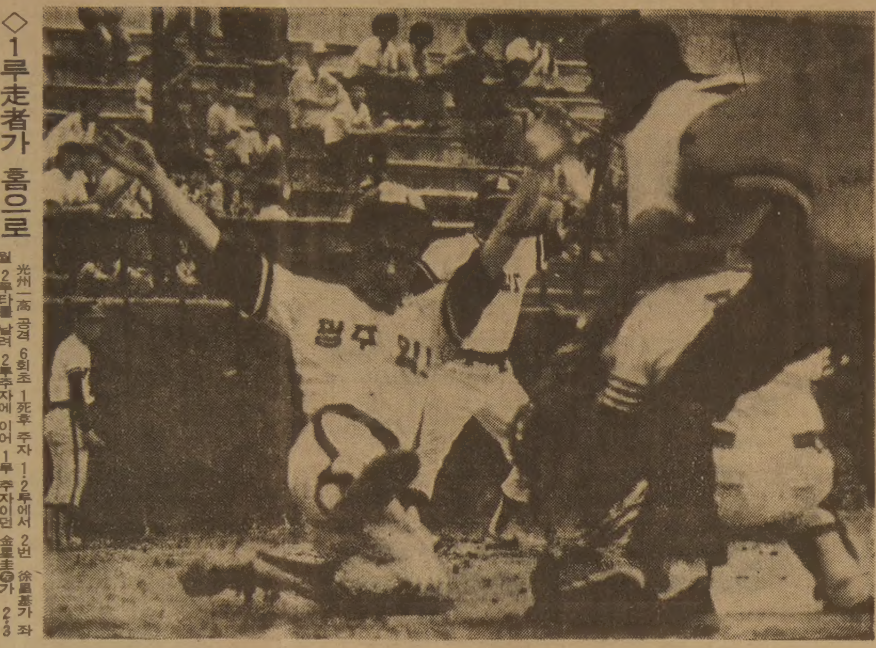
치욕의 콜드敗…66년 팀復活이래 첫悲劇

光州一 朴俊泰역투에 꽁꽁묶여

8-1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慶北高의 10년 아성이 光州一高 신예기 朴俊泰의 역투에 콜드게임으로 무너졌다. 최근 10년간 서울중앙무대에서만 19차례의 최다우승을 기록했던 慶北高의 몰락은 비참했다. 1년생 우완 朴俊泰를 선발로 내세워 6-0의 리드를잡은 光州一高는 16일 서울운동장에서 6회부터 속행된 봉황대기 고교야구3회전 계속경기서 2連覇를 꿈꾸던 慶北高를 산발 4안타, 1실점으로 막고, 6회초 徐昌基 朴哲祐의 연타로2점을 추가해 8-1, 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慶北高가 중앙무대서 콜드게임패당한것은 66년팀 부활이래 처음이다. 잠실구장으로 옮겨 진행된3회전 경기서는 大邱高가 에이스 張泰洙의 역투와 1번타자 姜起雄의 3타수 3안타 3타점 3득점의 수훈에 힘입어 培明高를 10-2로 완파, 8강에 합류했다.



◇1루走者가 홈으로 光州一高 공격 6회초 1死후 주자 1·2루에서 2번 徐昌基가 좌월 2루타를 날려 2루주자에 이어 1루 주자이던 金星圭⑦가 2·3루를 돌아 홈인하려다 좌익수로 부터 볼을 받은 慶北포수 河東爽에게 태그아웃당했다.

光州一高—慶北高

75년대통령배 결승에서 光州一高에 6-2로 패했던 慶北高의 악몽이 되살아난듯 했다. 慶北나인들은 그라운드를 떠나면서도 실감이나지 않은것 같았다. 부풀었던 대회 2連覇의 꿈, 2회전서 南大田高에 빼앗았던 16-0의 콜드게임승이 머리속을 어지럽혔다.

빗속에 6점을 잃고 사흘지나서 6회부터의 게임이 재개됐으나 慶北나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고교대표로 日本원정에 대비, 출국수속을 하느라 뒤늦게 그라운드에 도착한 慶北수비의 주축 柳仲逸은 6회초 光州一의 첫타자 8번 金木政의 땅볼을잡아 악송구, 1루에 살려주었다. 투수 李常勳은 1死1·2루의 위기에서 2번 徐昌基에 좌월2루타, 3번 朴哲祐에게 좌전적시타를 얻어맞아 2실점, 콜드게임패를 재촉했다.

6회말 1死후 慶北은 4번 柳仲逸이 우전안타, 5번 李常勳이 좌월2루타를 때렸으나 후속 범타로 1득점에 그쳤다.

光州一高는 13일 빗속에서 강행된 경기서 1회초 2개의 포볼과 慶北좌익수, 포수의 잇단 실책, 3번 朴哲祐와 6번 金宣鎬의 득점타로 3점을 선제, 기세를 올렸다. 慶北이 2회초 선발 李常勳을 언더드로어 文炳權으로 교체시키자마자 光州一은 8번 金木政, 9번 金鎭貴의 연속 2루타와 2번 徐昌基의 우중월 3루타로 통타, 2점을 추가해 승세를 굳혔다. 慶北은 光州一高 1년생 朴俊泰의 커브와 슬라이드에 범타로 물러났으며 잘 맞은 타구조차 야수정면으로 날아가 역전의 기회를 잡아보지 못했다.

◇14일 3회전 전적

광주일고	320	010	2	8
경북고	000	001	0	1

〈7회콜드게임〉 ▲광주일투수=朴俊泰 文熙洙(6회) 포수=金木政 ▲경북투수=李常勳(1·2회) 文炳權(2회) 포수=金允榮 河東爽(4회) ▲안타=광주일 10-4 경북

대구고	102	301	102	10
배명고	001	000	100	2

▲대구투수=張泰洙 金鍾培(6회) 李俊衡(9회) 포수=全鍾和 ▲배명투수=趙原濟 朴興德(6회) 포수=盧慶宇 ▲안타=대구13-5배명

大邱高는 培明격침

姜起雄 3타수 3안타 3得點

10-2

大邱高—培明高

大邱의 강타력을 견딜만큼 培明은 튼튼한 마운드를 갖지 못했다.

大邱는 타격좋고 발빠른 재주꾼 姜起雄이 培明수비진을 포볼과 스틸, 안타로 헤집으며 대승의길을열어놓았다. 1회초 포볼로나간 선두1번 姜起雄은 2盜에 성공하며 培明포수의 견제 악송구를 유발, 3루까지 진출했으며 4번 張泰洙의 땅볼로 홈인, 안타없이 선제1점을 올렸다.

2회까지 범타로 물러났던 大邱는 3회초 선두 9번 許榮秀가 기습번트안타로 살아나가자 1번 姜起雄이 통쾌한 좌월 2루타로 1점을 올리고 또한번 2점을 추가했다. 培明이 3회말 선두 7번 權泰熙의 좌전 첫안타와 투수 견제악송구, 희생타로 간신히 1점을 만회했다. 大邱는 4회초 집중4안타로 선발 趙原濟로부터 3점을 얻어 승세를 굳혔다. 大邱는 6·7회초 2안타로 1점씩을, 9회초 2안타와 희생타로 2점을 추가, 10-2로 대승했다.

"慶北이 콜드敗하다니"

침통한 同門들 자리도 못뜨고 눈물글썽

작년엔 4冠王…중앙大會만 19차례나 優勝

『1982년 8월16일은 慶北高야구사에 길이 남을것입니다』 16일 慶北高가 남은 4회에서 실점을 만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왔던 慶北高동문들은 모교가 9회를 채우지도 못한채 7회콜드게임으로 물러서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못했다.

慶北高 具守甲감독(45)이나 선수들도 콜드게임패란 사실이 믿어지지않는듯 모두 말을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고교야구의 대명사 慶北高로서는 씻을수 없는 치욕의 날이었다.

慶北高는 66년 야구팀이 부활된이래 15년간 전국대회에서 29회, 그중 중앙4개 대회서만도 19회의 최다 우승을 하며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야구의 명문. 67년에는 林信根을 주축으로 청룡기와 대통령기를 차지했고 南宇植 黃圭奉 李善熙가 활약하던 70·71·72년에는 대통령배를 3連覇한 위업을 이루어 고교야구의 금자탑을 세웠었다.

鳳凰球場 落穗

지난해에는 봉황대기·청룡기·황금사자기·전국체전등 4관왕의 신화를 창조했다. 봉황기에서는 1·5·11회등 3차례나 우승, 가장 인연이 깊은 팀으로 정평이 나있었고 이번 대회서도 2連覇의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평가됐었다.

국가대표 李常勳과 지난해대회 최우수선수 文炳權이 지키는 마운드,「금년도 고교 최우수 선수로 지목받고 있는 柳仲逸이 이끄는 화려한 수비등은 어느팀도 쉽게 넘겨볼 수없는 정상급의 강호였다.

慶北高는 올봄 대통령배 대회에서 光州一高에 4-2로 승리, 준우승을 차지했고 대붕기 우승, 청룡기 4강진출등 막강한 전력을 과시한바 있다.

慶北高의 콜드게임패는 69년 황금사자기대회서 城南高의 盧信相에 퍼펙트게임을 당한이후 두번째 비극인 셈이다. 스포츠의 세계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는것인가. 【徐興根기자】

경향스타

光州一高 투수 朴俊泰

포수로뛰다 자리바꿈한 "萬能"선수

慶北高 막강타선의 기를꺾은 光州一高투수 朴俊泰(1년)의 본래 포지션은 포수. 忠奬中 3년때인 지난해 청룡기 대회서 우승까지한 유망한 투수였으나 光州一高입학후 포수로 자리바꿈한 만능스타이다. 때때로 투수로 등판,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비밀 병기이다.

『안타는 3개맞았지만 慶北高의 배팅은 과연 셌읍니다. 아웃은 되더라도 쭉쭉 맞아 나가는데 아주 혼났어요』 朴의 애띤 얼굴에는 흥분보다는 겸손이 앞선다.

주무기는 커브와 인코너직구. 그러나 첫날(13일) 경기에서는 비때문에 커브가 잘 안먹혀 슬라이더를 주로던졌다.

투포수 중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물음에 『이번 동계 훈련의 결과를보고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타격에서도 3·5번을 치는 중심타자.

지역 예선서는 4할대를 쳤으나 요즘은슬럼프라고한다.

光州서 상업을하는 朴東萬씨의 3남3녀중 막내. 1m70, 68kg, 95m까지 던지는 강한 어깨를 갖고있다.

한국 金⑩ 2連覇

국제J陸上폐막

銀11·銅13…美2위 和3위

82서울국제주니어 오픈육상경기 대회가 15일 이틀간의 경기를 마치고 서울운동장에서 폐막, 한국은 금10, 은11, 동13개로 종합우승, 작년에 이어 2연패했다. 美國은 금9, 은8, 동8개로 2위, 네덜란드는 금3개로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金美歆(태안여상)은 여자3천m서 9분56초4를 마크,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고, 남자 삼단뛰기서 朴永峻(경북체고)은 15m24를 뛰어 2년연속 우승했다. 또한 여자투원반서 林敬淑은 13m48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은 트랙부문에서 크게 부진했으나 도약과 투척부문서 체면을 세웠다.

美모라레스, 1백m등4冠王

美國의 루이스·모라레스는 2백m서 21초17로우승, 1백m, 4백m계주, 1천6백m계주를 포함, 4관왕이 되었다. 이번대회서는 모두 19개의 대회신기록이 수립되었다.

◇메달집계

	①한국	②미국	③화란	④일본	⑤인도	⑥호주	⑦대만	⑧서독	⑨인니	⑩홍콩
금	10	9	3	2	2	2	2	1	0	0
은	11	5	0	4	2	2	2	1	2	1
동	13	8	0	3	2	1	0	0	3	0

◇최종일기록

▲남자2백m=①모라레스(미국) 21초17 ▲동8백m=①엠데(서독) 1분53초27 ③유태경 1분54초49 ▲동5천m=①마니게티(호주) 14분32초9 ▲동1백10m허들=①파웰(미국) 13초74 ③신득섭(한국) 14초64 ▲동1천6백m계주=①미국 3분17초57 ②한국 3분20초29 ▲동높이뛰기=①리후안(대만) 2m05 ②황두안(한국) 1m95 ▲동삼단뛰기=①박영준(한국) 15m24 (대회신·종전15m19) ▲동투원반=①부루인(네덜란드) 62m92 ②아포스토리디스(호주) 55m60 (이상대회신·종전53m50) ▲동봉고도=①피텐스(미국) 4m60 (대회신·종전4m20) ③황지현(한국) 4m ▲동투창=①니르말·싱(인도) 62m28 ②최형묵(한국) 60m96 ▲여자2백m=①우샤(인도) 24초48 ▲동1백m허들=①갈링(호주) 14초44 ▲동8백m=①호소노(일본) 2분12초41 ▲임순남(한국) 2분13초18 ▲동4백m허들=①한국 46초99 ▲동3천m=①김미경(한국) 9분56초4 (대회신·종전10분03초16) ▲동투원반=①임경숙(한국) 13m48 (대회신·종전12m78) ▲동넓이뛰기=①김미숙(한국) 5m73

구독신청 배달사고 593-2361

審判員이 記者폭행 경기진행방해 시비

15일 서울운동장서 열린82 국제 주니어 오픈 육상대회를 취재중이던 퀸스포츠 사진부 高明辰기자가 경기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심판원 李達幸씨로부터 욕설과함께 폭행을 당했다.

한국、全體級서 慘敗

世界아마레슬링 메달 1개도 못따내 충격

【에드먼턴(캐나다) 15日聯合】한국은 15일 이곳에서 폐막된 세계아마레슬링자유형선수권대회에서 7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나 1개의메달도 차지하지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메달후보로 꼽혔던 金鍾奎는 최종일 52kg급에서 소련의 오스만·에펜디에프에 12-4로 패배, 4위로 밀려났다. 이대회서 소련은 10체급중 7체급을 석권,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東獨은금2·동2로 2위, 美國은 74kg급의 리·켐프가 결승서 단·카라빈(체코)을 판정으로 꺾고 우승, 유일한 금메달을 얻어 3위를 마크했다.

한편 이란의 세이예드·자바르·메디윤(84kg)은 14일 4차전에 패배한후 숙소를떠나 자취를감추었다고 이란학생연맹이 발표했다. 메디윤은 호메이니에 반대하는 표시로 귀국을 거부한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메달집계

	금	은	동
▲소련	7	1	0
▲동독	2	0	2
▲미국	1	0	3
▲불가리아	0	4	1
▲일본	0	1	0
▲쿠바	0	1	0
▲캐나다	0	1	0
▲폴란드	0	1	0
▲체코	0	1	0
▲유고	0	0	1
▲헝가리	0	0	1

朴柱奉·李恩求2位 印、배드민턴選手權

【히데라바드15日PTI=聯合】한국의 朴柱奉과 李恩求는 15일 열린 제2회 印度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결승전에서 전년도 패자인 스웨덴의 토머스·킬스트롬과 스테판·칼손조에 2-0(15-10, 15-12)으로 무릎을꿇어 준결승에 머물렀다.

여자복식에서는 英國의 길리안·길크스와 길리안·쿨라크조가 같은 英國의 제인·웹스터와 카렌·차프만조를 2-0(15-1, 15-8)로 물리쳐 우승했다.

OB 朴哲淳투수 19연승 기록

【서울·大邱】OB 에이스 朴哲淳이 19연승을 올려 전·후반기 통산 20승2패 5세이브를 기록했다.

OB베어스는 15일 프로야구 서울경기에서 柳志煊·楊世鍾의 연속홈런과 朴哲淳의 구원투로 공동 선두였던 MBC青龍을 3-1로 물리치고 12승4패를 마크했다.

지난 4월11일 해태타이거즈와의 경기이후 패배를 모르는 OB의 朴哲淳은 이날도 5회말 선발 桂瀅鐵로부터 마운드를 물려받아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안타 1개만 허용하고 승리투수가됐다.

比 BBC提訴검토

★왜곡보도로 국가명예손상

필리핀정부는 영국 BBC방송이 제작한 필리핀에 대한 지극히 경멸적이고 허위와날조로 가득찬 특집프로로 인해 손상된 국가적 품위를 보호하기 위해 BBC에 대해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필리핀 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14일 말했다. 【마닐라=PNA】

◇王子와 휴가길에 英國의 찰즈황태자가 16일 볼모럴의 왕실저택에서 가족들과함께 하계휴가를 즐기기 위해 애버딘공항에 도착한후 생후 8주가된 아들 윌리엄왕자가 누워있는 바구니를 한손에들고 트랩을 내려오고있다. 【애버딘(스코틀랜드) 16日AP電=聯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1>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양달 ㉖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그애, 그애한테는 전 이중의 착각이 아니겠니? 오목이란 애를 마치 수인이처럼 여기고 있는가하면 그애가 아직도 다섯살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 네가 노처녀인 건 너도 알지? 수인이는 너하고 두살터울이야. 신문에 광고낸 오목이란 소녀도 수인이하고 동갑이고. 죽었다면 모를까 살았다면 당 나이를 먹었을 게 아니니? 고아들은 특히 조숙해. 일찌가니 짝을 찾고 아이를 낳아 가족을 만들었을 거야. 고아를 면할수 있는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고아 자신일뿐이야. 그앤 아직까지 고아일 리가 없어』

『알았어요, 오빠. 알았으니 제발 저 혼자 있게 내버려두세요』

『넌 참 노처녀적에도 안부리던 신경질을 혼인날 받아놓고 곧잘 부리더라』

수철이 대수롭지 않게 투덜대며 나가자 수지는 흩어진 책더미 사이에서 한동안 우두망찰을 했다.

빨리 서재에서의 일을 끝마쳐야 할것같기도하고 어디론지 급하게 달려가야 할것도 같았다.

더 늦기전에 가봐야 돼. 아니 벌써 늦었을거야.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면좋으련만. 이렇게 조바심하면서 어디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허둥지둥 쫓기듯이 어지러뜨려놓은 서재를 대강 정리하면서 겨우겨우 자기가 하지않으면 안되는 일의 갈피를 잡아갔다. 그건 오목이로부터 태어난 가족을 빼앗은 건, 이미 돌이킬수 없지만 오목이가 스스로 선택한 가족을 빼앗은 일만은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 일루의 희망을 위해 더 늦기전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였다.

그녀가 천방지축 달려간 곳은 인재의 회사였다. 전화를 걸고 근처 다방에서 기다릴까 하다가 혹시 안만나준달까봐 회사 문턱을 지키기로 했다. 그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급했다. 만나면 체면불구 애원하리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설득하리라. 설마 내 애원을 안 들어주진 못할걸.

수지는 아직도 자기에게 인재에 대한 사랑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자신의 응석에 꼼짝못하리라는 자신감은 제법 당당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일이야. 세상도 참이상한세상이었지. 아이들은 하나같이 아귀(餓鬼)가, 어른은 하나같이 악귀(惡鬼)가 되어 날뛰던 지옥의 계절이었으니까.

저 많은사람중 그런 지옥의 계절, 천구백오십일년 겨울의 추위와 허기와 잔혹에 대해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수지는 그녀의 눈앞을 흐르는 옷잘 입고 근심 없어뵈는 번화가의 선남선녀들을 이방(異邦)의 풍경처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마침 퇴근무렵이어서 쏟아져나오기 시작한 회사원들중에서 쉽게 인재를 찾아 낼수가 있었다.

『인재씨』

그가 두리번대다가 수지와 눈이 맞았다. 그가 얼굴에 플래시가 비춘 것처럼 반짝 반가와하고나서 곧 어둡게 실망하는것을 수지는 똑똑히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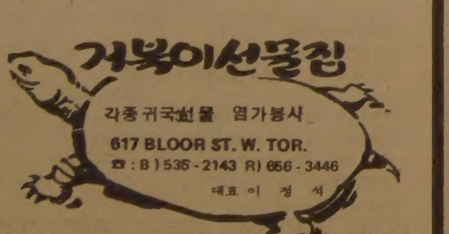
쯧쯧 불쌍한 사람, 아직도 날 좋아하나봐. 그렇지만 절대로 헛된 희망을 주면 안되지. 속으로 이렇게 자신을 다잡으면서 수지는 인재한테 다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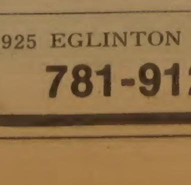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세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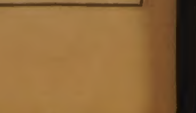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셉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우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롤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도너스샵에서 풀타임 일하실 여자분구함
시간 오전7시-오후3시(월-금)
Victoria Park & Steel (B)499-4459 (R)299-1431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Mr. 모리

가정 재봉사 구함.
영어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633-2748 Mrs. Gold (토요일에는 전화사절)

도미니언 도나스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구함
(칼레지×영 써브웨이스테이션 건물안)
직접 내방바람.

성실하고 용모단정한 경험있는 Helper 구함.
(GreenWood & Queen)
전화 : 466-3995

일본식당 남자 키친헬퍼 구함.
전화 : 960-9035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p.m~8 a.m.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222-3877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파트타임 캐셔와 헬퍼구함.
15 Queen St. E. 전화: 364-4054
직접 내방바람.

풀타임 경험있고 영어할 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937 Bay St. 이나, 462 Kingston Rd.로 직접내방바람.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3871 Lawrence Ave. E.
전화 : 431-7168, 439-6428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프로페셔날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인지도를 받으실분 연락 주십시요. (all level)
Call Mr. Wong 233-420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여권

여권번호 : MB-137650
성 명 : 이 순자
연락처 : 742-1281 (Mrs. Lee)

집렌트

방세놓습니다. 565 Pape Ave.
2층 전체 월 : $350
전화 : 591-6863, 438-4519

매매

여자용 여름용 한복 급매
한벌에 125불
전화 : 769-4366, 김 (오후6시이후)

(1)건물(Bloor & Christie) $159,000
(2)Coin Laundry & Building $159,000
(3)Variety Store: 주매상 $8,000(스카브로)
(4)Variety Store: 주매상 $4,000+Video(Hamilton)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여자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아스킹 $15,000+스탁 2층에 2베드룸 있음.
전화 : 536-6250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개인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전화 : 656-7753 Mr. 최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7,000.
리스 :6년. 렌트 :$1,260. 1,600 sq.Fit
계속 번창하는 지역임. 전화 : 686-0155

4 Door, Walk-in-Cooler and Water Cooling System Air Conditioner팝니다.
전화 : 233-2195(B), 233-0732(R)

개인 레스토랑 매매.(레스토랑 + Tavern)
좋은 위치, 좋은 비지네스. CN타워 근처.
300,000 Turn Over a Year. 주5일 오픈.
아스킹 : 179,000. 다운 : 75,000. 12년 리스.
더원하시면 가능함. 아주 흥미있으신 분만 연락바람.
전화 : 596-6706 (Jimmy)

버라이어티 가게매매.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렌트600불. 전화 : 266-7833 (Mr. 김)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가게 12만달러 15%모기지. 교통이 바쁜 지역에 2 베드룸 아파트. 최고조건, 주차장이 있고, 빈가게를 인수됨.
◉아파트 빌딩 : 7동. 2층벽돌집에 주차장과 3개의 벽난로 있음. 연수입 : $25,452. 아스킹 : 200,000.
Call Doris Burda 763-5555
Cholken Real Estate.

(1)시간 짧은 Driving Hambe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5년옵션.
(2)주매상: $6,000. 렌트: $1,800. 리스: 1989+5년옵션.
Mrs. Woo. 전화 : 741-9170(B), 851-4717(R)
A.E.LEPAGE(Ontario)Ltd. Realtor.

Store Equipment for Sale
Dairy Box 1, 후리저(컴프레샤 포함)
전화 : 844-5719

상점 급매 (양도)
비지네스 전부재고품(꽃, 채소, 과일, 잡화류)및 시설일체, 자동차 양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나, 유경험자로도 책임지고 트레이닝 해드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라.
아스킹 : $10,000
전 화 : 769-5584 (서선생)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한국일보를 구독하십시오.
원하시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신청:
☎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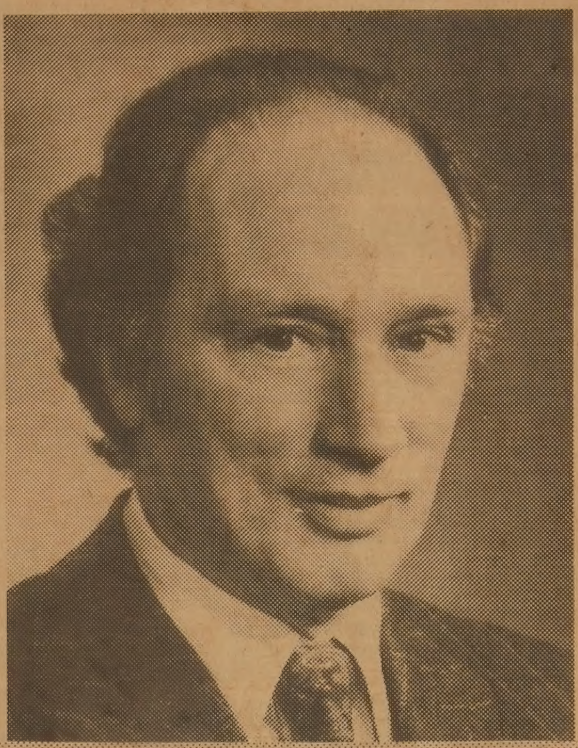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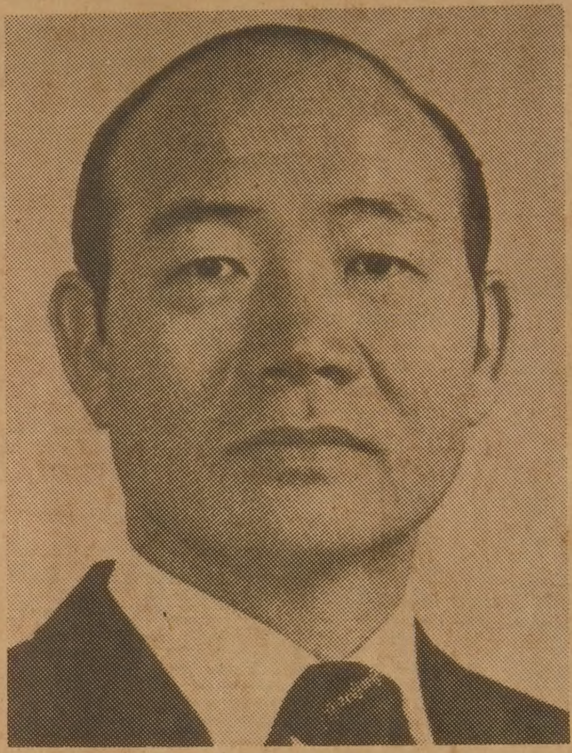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환 영





전두환대통령 각하 내외분
캐나다 방문 환영

대통령각하 내외분 캐나다 방문 및
한카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진상교주식회사
토론토사무소 임직원일동

M & J International Co.

☎ : 630—0313